

外來觀光客 消費支出에 의한 觀光의 經濟的 效果分析

- 產業聯關分析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奎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12월 일

慶州大學校大學院

觀光開發學科 觀光資源管理專攻

蔡 榮 澤

蔡 榮 澤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인호 

審査委員 趙 秉 祺 

審査委員 金 奎 鶴 

1998년 12월 일

慶 州 大 學 校 大 學 院

目 次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目的	3
3. 研究의 範圍 및 方法	5
II. 觀光産業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理論的 考察	7
1. 觀光乘數에 대한 理論的 考察	9
1) 乘數의 概念과 觀光乘數	9
2) 케인즈類의 觀光乘數와 經濟基盤理論의 觀光乘數	11
2. 産業聯關分析의 構造와 理論的 考察	15
1) 産業聯關分析의 概念	15
2) 産業聯關分析의 沿革과 有用性	17
3) 産業聯關表의 構造	20
4) 産業聯關分析을 위한 係數算出 方法	22
3. 先行研究動向	28
III. 觀光産業의 定義와 産業의 分類 및 統合	32
1. 外來觀光客의 動向	32

2. 觀光產業의 定義 및 特性	34
3. 産業分類 및 統合	35

IV. 産業聯關分析에 의한 觀光産業의 經濟的 效果分析

1. 觀光産業의 生産誘發效果	40
2. 觀光産業의 所得效果	42
3. 觀光産業의 附加價值效果	43
4. 觀光産業의 輸入誘發效果	45
5. 觀光産業의 前・後方 聯關效果	46

V. 外來觀光客 消費支出에 의한 經濟的 波及 效果

1. 外來觀光客에 의한 經濟的 波及效果	49
2. 分析結果에 대한 論議	51

VI. 結 論

參考文獻	60
附 錄	65
ABSTRACT	80

表 目 次

<표 II-1> 산업연관표의 구조	21
<표 II-2> 관광효과분석의 주요내용	31
<표 III-1> 연도별 외래객 입국자 및 여행수입	33
<표 III-2> 국가별 관광산업의 분류	36
<표 III-3> 산업연관분석 사례별 관광산업분류	37
<표 III-4> 관광진흥법에서의 관광산업의 분류	38
<표 III-5> 본 연구에서의 분류와 산업연관표와의 대비	39
<표 III-6> 산업연관표 402 기본분류와 18개 산업부문 대응표 .	39
<표 IV-1> 산출승수	41
<표 IV-2> 산업부문별 소득효과	43
<표 IV-3> 산업부문별 부가가치효과	44
<표 IV-4> 산업부문별 수입유발효과	45
<표 IV-5> 전·후방 연관효과	47
<표 V-1>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51
<표 V-2> 산업부문별 승수비교	54
<附表 III-1> 국산거래표	67
<附表 III-2> 투입계수표	70
<附表 IV-1> 생산유발계수	72
<附表 IV-2> 소득유발계수	74
<附表 IV-3> 부가가치유발계수	76
<附表 IV-4> 수입유발계수	78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觀光은 이제 하나의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아울러 觀光産業은 자동차, 철강, 전자, 농업을 뛰어넘는 世界 最大의 産業으로 떠오르고 있다(McIntosh, 1995 : 4).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들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社會, 文化的 변화 중의 하나로 勞動 및 生産中心의 生活樣式에서 餘暇 및 消費中心의 생활양식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사회가 창조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문겸, 1993 : 78).

그리고 관광은 全世界에서 1억개 이상의 일자리를 創出하고 있는 産業이며(Kotler, 1993 : 194), UN 회원국 중 절반이상의 국가에서 관광산업이 제1 또는 제2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Kotler, 1993 : 196).

세계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1995년도 전세계의 관광산업은 국내 및 해외관광을 합쳐 전세계 國內總生産(GDP)의 10.9%를 차지했고, 勞動人口의 10.7%를 차지한 세계최대의 산업이라고 하였다.

세계관광기구(WTO)는 전세계의 연간 海外旅行 需要가 1995년 5억6천여만 명에서 2010년에는 10억5천여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東아시아 지역의 外來觀光客 需要는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WTO, 1997 : 8-15).

관광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자 관광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더 이상 관광을 일부 有閑階級의 餘暇 善用 次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大衆들이 함께 누리는 活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관광

산업은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런 경향은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도자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TV의 관광홍보물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는 아마도 관광산업이 갖다 줄 수 있는 높은 雇傭 및 所得創出效果와 아울러 無公害 産業이라는 매력때문일 것이다.

先進國들은 自國文化의 전파와 지방자치단체의 收益 창출을 목적으로 관광산업을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들도 貿易收支 赤子の 보전을 위해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으로선 높은 附加價值와 雇傭을 창출하면서 外貨稼得率이 높은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하겠다.

이와같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 즉 관광배출지로 떠오를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제주도 無査證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중국인의 여행자유지역에 한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 중국 정부의 승낙을 받아내기도 했다(대한민국 정부, 1998 : 266-267).

이는 곧 보이지 않는 수출이며 굴뚝없는 산업(invisible expert and industry without chimney)이라 불리는 관광과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1998년에 금강산 관광선 운항이 개시돼 남북한 뿐만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했으며, 이는 또 관광 및 관광산업이 가져다 줄 엄청난 波及效果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해 볼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한국의 觀光政策은 그동안 정교한

波及效果分析, 특히 經濟的 波及效果분석의 응용이 미흡한 채 觀光客의 量的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觀光 및 觀光산업에 대한 基本的 認識이 부족했고 또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충분치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外來觀光客 消費支出에 의한 觀光산업의 經濟적 效果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觀光産業의 振興과 관련,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研究의 目的

國際觀光(international tourism)이 大量觀光(mass tourism)의 特性으로 나타남에 따라 國際觀光客(international tourists)에 의해 派生되는 經濟的 效果는 한 나라의 國內經濟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外來觀光客(foreign tourists)을 받아들이는 수용國의 입장에서 볼 때 觀光산업은 外貨稼得率이 매우 높은 수출산업이며 이로인해 誘發되는 소득, 고용, 재정수입의 증가 등 각종 經濟적 波及效果가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권영각, 1993 : 25).

또 觀光산업이 가져다 주는 便益은 호텔·식당·소매업 그리고 운송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 직·간접적인 觀光客 지출이 지역經濟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乘數效果, 觀光客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세금수입,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촉진 등으로 볼 수 있다(Kotler, 1993 : 197-9).

일반적으로 觀光의 經濟적 效果를 파악하는 목적은 觀光개발에 의한 사회·문화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의 측면을 보완하고, 觀光개발의 正當성을 확보하거나 지역계획가들과 政策결정자들에게 觀光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Kottke, 1988 : 122).

특히 外來觀光客의 우리나라 방문은 우리의 수출활동으로서 國家經濟는 물

론 사회 문화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影響度를 計量化하여 파악함이 올바른 관광정책개발의 한 관건이 되고 있다(권영각, 1993 : 25).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보통 단일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관광분야에 의한 수입, 임금, 이익 등과 같은 자료를 GNP, 국가적인 고용 등과 같은 핵심적 경제지표와 비교하는 개략적 방법은 관광효과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Fletcher, 1989 : 515).

실제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지의 경제 발전 정도, 관광객의 유형, 관광시설의 소유관계, 토착 노동력 여부, 현지 주민의 소비성향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김사현, 1997 : 366-8). 따라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종합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만약 경제적 효과가 잘못 추정되거나 편익의 배분이 부적절하게 나타날 경우 관광산업에 의한 便益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의해 관광산업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Lankford and Howard, 1994 : 121-2).

본 연구는 産業聯關모형을 통해 관광활동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직·간접 효과 뿐만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산·소득·부가가치·수입 유발효과, 전·후방연관효과 등으로 구분 파악하고, 산출된 효과를 토대로 외래관광객 消費支出을 통해 관광산업이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導出된 파급효과를 先行研究와 비교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 관광산업의 올바른 육성과 관광개발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3.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시간적 범위는 한국은행에서 1998년 8월에 발간한 '1995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産業聯關分析에 의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년도를 1995년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관광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적 영향 중에서 경제적 영향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산업연관모형의 開放模型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효과 중 生産·所得·附加價值·輸入誘發效果와 前·後方 聯關效果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광의 파급효과중 雇傭效果는 본 연구에서 자료를 이용한 1995년 산업연관표 402 부문에 대응한 정확한 雇傭者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고용파급효과도 다른 파급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나 관광관련산업의 분류·통합과 다른 고용자료를 이용, 任意推定할 경우 오차가 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고용파급효과부문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많은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방법은 기 발표된 각종 文獻의 고찰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의 틀을 구성한 후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한다.

그리고 분석모형은 산업연관모형중 수입된 재화를 국산품과 별개로 취급하는 非競爭 輸入型으로 했는데, 이것은 관광산업에 의한 輸入誘發效果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산업연관표에서 內生部門에 民間消費支出을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 閉鎖模型(closed system)과 開放模型(open system)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파

악한다는 점에서 개방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의 총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관광객의 지출액을 산출된 계수로 곱해 전 산업에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觀光産業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理論的 考察

觀光客의 來訪이 지역 또는 국가에 미치는 經濟的 影響을 經濟적 影響(economic impact) 또는 經濟的 效果(economic effect)라고 부르며, 그 영향이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인 便益(benefit)과, 부정적인 측면인 費用(cost)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김사현, 1997 : 326).

일반적으로 관광의 經濟적 효과중 긍정적 효과는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창출, 역내 또는 국가의 經濟구조의 다변화, 국가 및 지방정부의 稅收확대 등이 있으며, 부정적 효과는 인플레이션 유발, 소비성향 증대, 經濟活動의 외부의존도 증가로 인한 대외종속의 가속화, 生産의 계절성, 경기변동에 대한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McIntosh, 1995 : 321-323 ; 김규호, 1996 : 9 ; 오순환, 1997 : 8).

관광의 經濟적 효과는 발생 단계별로 直接效果(direct effect)와 間接效果(indirect effect), 그리고 誘發效果(induced effect)로 나눌 수 있다. (김사현, 1997 : 326).

直接效果란 관광객이 그 지역에서 지출한 경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經濟적 효과로서,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유흥업소, 기념품점 등의 관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며, 1次 效果(primary effect)라고도 한다.

그리고 間接效果란 관광객의 1차 지출이 해당 지역경제(관광업체)에 주입되 면 이에 영향을 받는 집단, 즉 관광업체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에게 발

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또한 관광객 지출에 의한 소득증가로 가계부문의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誘發效果라고 한다.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합하여 2次 效果(secondary effect)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 등의 영향력은 지역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近隣效果(neighbourhood effect) 또는 擴散效果(spill-over effect)를 일으키거나 시장기구로 통제할 수 없는 外部效果(external effect)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공간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經濟效果(regional economic effect),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國家經濟效果(national economic effect), 또는 국가간을 대상으로 하는 國際經濟效果(international economic effect)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오순환, 1997 : 10).

그러나 관광객 지출로 인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는 간단치 않다.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도구로는 주로 乘數分析(multiplier analysis),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 產業聯關分析(input-output analysis) 등이 사용된다(김사현, 1985 : 273 ; 김규호 1996 : 10). 이들 분석방법들 중에서 산업연관분석이 그 有用性を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다(U.N. ESCAP, 1990 :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케인즈류의 관광승수모형과 경제기반이론적 승수모형,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觀光乘數에 대한 理論的 考察

1) 乘數의 概念과 觀光乘數

(1) 乘數의 概念

독립적인 支出이 증가하면 所得은 단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倍數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乘數效果(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또 지출의 독립적 증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배수 또는 소득의 증가와 지출의 독립적 증가의 비율을 乘數(multiplier)라 한다(조순, 1986 : 412-413). 즉 乘數란 어느 지역경제에 끼친 최초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 경제에 가져온 倍數만큼의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승수개념은 1880년대부터 인식되어 오다가 1930년대의 칸(Kahn, 1931 : 173-198)에 의해 처음으로 집대성됐다. 그는 1931년 “국내투자의 실업에 대한 관계”(The Relation of Home Investment to Unemployment)라는 논문을 통해 乘數效果의 원리를 처음 소개했다. Kahn의 승수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체계화한 학자는 케인즈(Keynes, 1933 : 405-407)이다.

케인즈의 單純理論(simple Keynesian theory)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승수이론에 따르면 國民假處分所得(Y)의 결정은 외생변수인 독립투자($I = \bar{I}$)와 내생변수인 소비지출(C)의 함수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 = C + I \quad (1)$$

$$C = a + cY \quad (2)$$

과 같이 된다.

$$I = \bar{I} \quad (3) \text{일 때}$$

(2), (3)식을 (1)에 대입하면

$$Y = \frac{1}{1-c}(a + \bar{I}) \quad (4)$$

독립투자의 증가 ΔI 의 증가는 ΔY 만큼의 소득증가를 가져온다고 할 때 식 (4)는 다음과 같이 바뀌 쓸 수 있다.

$$\Delta Y = \frac{1}{1-c} \Delta I \text{가 되는데, 여기서 } \frac{1}{1-c}, \text{ 즉 } \frac{1}{1-MPC} \text{ 이 케인즈승}$$

수(k)이다.

그러므로 限界消費性向 c 의 크기에 따라 투자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케인즈승수 k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投資나 소비는 국민소득을 확대시켜 주는 注入因子(injection factor)이며 조세, 수입, 저축 등은 국민소득을 축소시키는 漏出因子(leakage factor)로 파악된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주입과 누출인자의 예를 살펴보면 관광과 관련된 소비, 관광시설투자와 정부지출, 관광에 의한 외화수입, 즉 수출효과 등이 주입인자에 해당하고, 역외로부터의 원료수입, 관광소득의 역외유출, 해외 여행경비지출 등과 같은 수입효과와 저축, 조세가 누출인자가 된다(김규호, 1996 : 12).

(2) 觀光乘數

觀光乘數 또한 일반승수와 동일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며 단지 분석의 대상이 관광으로 제한된 것이 차이점일 뿐이다. 따라서 관광승수는 관광객이 지출한 돈이 완전히 외부로 누출될 때까지 地域經濟를 循環하면서 발생시킨 경제적 영향의 정도, 즉 投資 한 단위 변화에 의해 야기된 雇傭이나 所得 또는

産出의 변화분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Fridgen, 1991 : 150). 이것은 다시말해 외부관광객이 특정 지역에서 지출한 돈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이나 소득 또는 고용증대 등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해 주는 측정수단인 것이다(Var & Quayson, 1985 : 499 ; 오순환, 1997 : 23).

관광부문에 대한 승수연구는 영국 서레이 대학의 아처(Brian Archer)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들어 이론적 체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김사현, 1997 : 332). 관광승수는 방법론상으로 크게 아드혹승수(ad hoc multiplier)와 체계적 승수(systematic multiplier)로 나뉜다.

아드혹승수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적으로 연구자가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모형으로서 단순하고 사용이 쉽지만 비조직적이고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는 다시 케인즈류 관광승수와 경제기반이론류의 관광승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體系的 乘數는 조직적 분석기법으로서 全産業間의 경제거래 정보에 바탕을 둔 산업연관분석류의 승수가 대표적이다(김사현, 1997 : 332-333).

2) 케인즈類의 觀光乘數와 經濟基盤理論的 觀光乘數

관광자가 지역내에서 지출한 경비가 해당 지역의 경제구조내에서 乘數倍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倍數를 의미하는 觀光乘數는 케인즈의 기본승수 모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A \times \frac{1}{1-BC} \quad (5)$$

여기서,

A = 관광객 총지출중 관광지에 남는 비율

B = 관광지에서의 지출이 지역소득자에 의해 당해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

C = 관광객지출이 그 지역소득이 되는 비율

그리고 케인즈의 所得乘數模型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식 (5)의 모형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A 는 전체 관광경비중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로 $A < 1$ 이 되기 때문에 승수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 (5)와 같은 단순모형에 대해 Archer(1973)는 지역내 각 산업부문의 관계와 이들 부문과 소득발생효과간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Archer모형 또는 부문통합모형(sectoral aggregation model)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식 (5)과 같은 단순한 모형으로는 지역내 각 산업부문의 관계와 이들 부문과 소득발생효과간의 관계 등 관광의 지역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아처는 영국 북웨일즈 지방 양걸시郡에 대한 방문관광자의 승수효과를 측정하면서 식 (5)의 약점을 보완한 발전된 모형을 제시하였다(Archer, 1973 : 25-76).

이와 같은 식 (6)의 관광승수모형은 관광객을 숙박유형별 및 소비지출 유형별로 각 부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식 (5)보다는 한층 현실성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케인즈류의 관광승수모형은 자료수집이 용이한 반면에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나 정보는 정책결정자나 계획가에게 극히 제한된 가치밖에 제공하지 못하며 지역내의 소비지출에 대한 誘發效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김사현, 1997 : 332).

$$\sum_{j=1}^N \sum_{i=1}^n Q_j K_{ij} V_i \left\{ \frac{1}{1 - L \sum_{i=1}^n X_i Z_i V_i} \right\} \quad (6)$$

i = 소비지출형태별

j = 관광객 숙박형태별

Q = 숙박형태별 관광객의 지출비율

K = 숙박형태별 관광객의 지출형태별 소비지출 백분비

V = 지출항목별 소득발생을

L = 현지소비성향

X = 소비지출유형

Z = 지역주민이 역내에서 소득을 소비하는 비율

經濟基盤理論(economic base theory)은 輸出基盤理論(exports base theory)이라고도 불리며 케인즈류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地域成長理論으로서(홍기용, 1995 : 90-1), 1940년대 Hoyt와 Weimer 등에 의해 창안되고 1960년대에 Isard와 Tiebout에 의해 체계화된 지역경제분석기법이다.

經濟基盤理論은 지역경제를 基盤産業(basic industries)과 非基盤산업(non-basic industries)로 나누고 기반산업이 그 지역경제를 이끌고 나간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기반산업이란 역외로의 수출을 통해 그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며, 비기반산업은 역내수요의 충당을 위한 소비산업으로서 기반산업에 종속되는 서비스산업을 일컫는다.

관광이란 외부로부터 역내로 주입되는 소득원으로서 수출과 동일하므로, 관

광산업은 기반산업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김사헌, 1997 : 336).

경제기반이론에 따르면 전체 산업활동에 의한 소득(T)는 기반산업에 의한 소득(B)과 비기반산업 소득(N)의 합이므로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 = B + N \quad (7)$$

그리고 비기반소득을 전체 소득의 함수로 표현하면

$$N = aT \quad (8)$$

(단, $a = \frac{N}{T}$ 로 지역의 한계지출성향을 의미함)

식 (8)을 (7)에 대입하면

$$T = B + aT \text{ 에서 } T = \frac{1}{1-a} \times B \quad (9)$$

여기서 경제기반승수 $k = \frac{1}{1-a}$ 가된다.

관광산업을 기반산업의 하나로 보면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기반승수 $k = \frac{1}{1-a}$ 가 될 때 바로 이 k 가 관광승수가 된다는 것이다(김사헌, 1985 : 287-288).

경제기반이론적 모형의 유용성은 모형이 단순하여 경제기반승수의 산출이 용이하고 통계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基盤比(base ratio)만 알면 승수효과가 쉽게 예측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흐름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예측을 통하여 경제예측이 가능하고,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산업간의 관련성에 의해 생산 또는 고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김규호, 1996 : 15).

경제기반이론적 모형의 단점은 첫째, 모든 경제성장이 외부요인에 의해서만 야기된다는 가정 때문에 폐쇄경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므로 수출산업의 영향을 過大評價할 수 있다는 점(Frehtling, 1987 : 348 ; 조현순, 1991 : 32), 둘째, 외부에서 주입된 민간 및 정부투자, 관광객 지출 등의 모든 수입이 지역경제에 동일한 승수효과를 미친다는 점(Frehtling, 1987 : 349 ; 김사현, 1997 : 337), 그리고 기반 부분 중 지역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생산요소는 輸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김규호, 1996 : 16 ; 오순환, 1997 : 31).

2. 産業聯關分析의 構造와 理論的 考察

1) 産業聯關分析의 概念

産業聯關分析은 소득이 발생하는 배후의 생산구조에 주목하여 각 산업부문의 상호의존관계라는 측면에서 最終需要를 외생변수로 부여하고 그것이 국민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강병주外, 1992 : 53). 따라서 이 기법은 관광객의 消費支出과 같은 최종수요의 변동이 소득의 증가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끼치는가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오순환, 1997 : 32).

산업연관분석은 케인즈류의 승수이론이나 경제기반이론류의 승수분석 등의 기존 승수기법이 파악치 못하는 유발효과 및 산업간 연쇄효과까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검토해 볼 가치를 갖고 있다(김사현, 1997 : 345).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

으로써 각 산업은 직·간접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産業과 産業間의 聯關關係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기법이 産業聯關分析(input-output analysis 또는 interindustry analysis)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각 산업간에 이루어지는 원재료의 매매거래를 토대로 하게 되는데,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인 産業聯關表의 작성으로부터 출발한다(한국은행, 1998 : 1).

산업연관표란, 일정기간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각 산업간 거래, 최종 수요부문과 산업간의 거래, 원초적 투입요소부문과 산업간의 거래를 일정한 기록원칙에 따라 行列(matrix)형식으로 기록, 분석한 表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광하, 1991 : 24-25).

산업별 생산활동은 최종수요의 상품구성은 물론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와 그에 따른 각 산업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연관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기법으로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投入과 産出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需要와 供給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고려해야 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總量分析과 産業聯關分析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국민경제분석이 가능하게 된다(한국은행, 1998 : 2).

2) 産業聯關分析의 沿革과 有用性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經濟表'(Tableau economique ; 1758)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론적인 토대는 왈라스(L. Walras)의 一般均衡理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市場經濟에서 모든 경제부문이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부문의 需要와 供給에 대한 均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가격과 수급량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國民經濟에 대한 實證的 분석도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미국의 레온티에프(W.W. Leontief)교수이다. 그는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財貨와 서비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제표의 작성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1936년에 '美國經濟體系에서의 數量的인 投入產出關係'(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S.)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 후 그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産業聯關表를 작성하여 1941년에 '美國經濟의 構造'(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라는 책으로 발표한 데 이어 1951년에 '1919 - 1939년의 미국경제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 -1939)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해 경제분석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산업연관분석'이라고 불리는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의 嚆矢가 되었다는 것이다(강광하, 1991 : 15-18).

모든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산업연관분석은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을 현실 경제에 적용한 實證分析模型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미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7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영국에서는 1948년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표를 각각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UN통계국도 1966년에 ‘投入產出表와 分析의 諸問題(Problems of input output tables and analysis)’라는 매뉴얼(manual)을 간행하여 각국의 산업연관표 작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분석의 유용한 도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또 地域 및 國際産業聯關表가 작성되어 地域經濟分析이나 國際經濟의 波及效果分析에 활용되는 등 산업연관분석은 그 이론과 응용의 양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應用經濟學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한국은행, 1998 : 3).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의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표는 19개 산업부문으로 분류된 일종의 試算表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본격적인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이 1962년에 착수하여 1964년에 작성 공표한 ‘1960년 산업연관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한국은행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변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및 1995년 實測産業聯關表, 그리고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및 1993년 簡易延長表를 각각 작성하였다(한국은행, 1998 : 4).

産業聯關分析은 다음과 같은 長點을 갖고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有機的으로 結合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산업연관분석은 巨視, 微視分析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消費, 投資, 輸出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生産, 雇傭, 輸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예측 또는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연관표의 분석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投入係數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生産, 雇傭, 輸入, 物價 등에 미친 과급효과 측정에 유리하다.

넷째, 산업연관분석은 賃金, 利潤 등 附加價值 변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價格 波及效果 역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原油價格 등 특정 부문의 가격변동이 物價에 미치는 과급효과 측정에 있어 여타의 다른 분석수단에 비해 훨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강광하, 1991 : 21-22).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Fletcher(1989)는 경제구조와 연구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용가능한 자료, 연구목적 등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되지만 관광분야에 의한 수입, 임금, 이익 등과 같은 자료를 GNP, 고용 등과 같은 경제지표와 비교하는 방법은 관광효과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費用-便益分析은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 많은 明示的 및 默示的 假定(explicit and implicit assumption)이 만들어져야 하고 관광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Archer(1973)에 의한 'ad hoc'승수모형은 費用-便益分析에 內在되어 있는 主觀的 요소를 일부 제거하고 있지만 모형설정자가 분석과 관련된 거래부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주관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産業聯關分析은 일반균형 접근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에게 경제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경제부문의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으며, 관광효

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관광관련부문은 세분화하고 다른 부문은 통합할 수 있어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費用-便益分析, 乘數模型과 달리 價值 中立的이며 가치판단은 종합적인 설명에 국한되고, 國民計定과 관련하여 전체 경제에 대한 자료중에서 질적으로 높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Fletcher, 1989 ; 김규호·김사현, 1998 : 153-154).

3) 産業聯關表의 構造

産業聯關表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國民經濟 내에서의 財貨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行列(matrix)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統計表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 자본 등 本源的 生産要素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消費財나 資本財 등으로 판매하게 된다.

산업연관표에서는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 기록한다.

이를 표로 표시해 보면 <표 II-1>과 같다. 이 표에서 세로방향(列)은 각 산업부문의 비용구성 즉 投入構造를 나타내는데 이는 원재료투입을 나타내는 中間投入과 노동이나 자본투입을 나타내는 附加價値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總投入額이라 한다.

이 표의 가로방향(行)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의 판매 즉 配分構造를 나타

내는 것으로 중간재로 판매되는 中間需要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最終需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總需要額이라 하고 여기서 수입을 뺀 것을 總產出額이라 한다. 이때 각 산업부문의 總產出額과 이에 대응되는 總投入額은 항상 일치한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內生部門이라 하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을 外生部門이라 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생부문이란 외생부문의 수치가 模型 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산업연관표 작성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작성된 표의 분석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외생부문이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이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이 부문의 값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 작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1998 : 8-9).

<표 II-1> 산업연관표의 구조

산 출 투 입		내생부문					최종수요	총산출액 (X _i)
		산업						
		1	2	3		j		
내 생 부 문 (X _i)	1	X ₁₁	X ₁₂	X ₁₃		X _{1j}	D ₁	X ₁
	2	X ₂₁	X ₂₂	X ₂₃		X _{2j}	D ₂	X ₂
	3	X ₃₁	X ₃₂	X ₃₃		X _{3j}	D ₃	X ₃
	⋮						⋮	⋮
	⋮	(제2상한)					(제1상한)	⋮
	⋮						⋮	⋮
	i	X _{i1}	X _{i2}	X _{i3}		X _{ii}	D _i	X _i
부가가치		V ₁	V ₂	V ₃		V _j	V _D	V _t
		(제3상한)					(제4상한)	
총투입액(X _j)		X ₁	X ₂	X ₃		X _j	D	경제총계

1998년에 작성된 1995년 산업연관표는 402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168, 77 및 28개 부문 등 세종류의 統合 部門表로 각각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에 민간소비지출을 포함시키는데 따라 閉鎖模型(closed system)과 開放模型(open system)으로 구분된다. 즉 개방모형은 민간소비지출을 내생부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최종수요부문으로 취급하는 모형을 의미한다(강광하, 1991 : 25).

또한 開放經濟體制下的 산업연관표는 수입된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중간투입물로 가정하는 競爭輸入型과, 수입된 재화는 국산품과 동일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별개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非競爭輸入型이 있다. 경쟁수입형은 최종수요변화에 따른 과급효과의 분석에 있어서 漏出되는 輸入額을 파악할 수 없는 반면에 비경쟁수입형은 수입품의 소비구조가 반영되어 산업부문별 수입유발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산품과 수입품의 구입비율이 해외시장이나 국내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수입품에 대한 투입계수가 불안정하다는 약점이 있다(강광하, 1991 : 43-46).

4) 産業聯關分析을 위한 係數算出 方法

(1) 投入係數

産業聯關分析은 産業聯關表를 중심으로 산출되는 각종 係數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계수중 우선적으로 산출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 投入係數(input coefficient)이며 각 산업간의 투입계수를 한 곳에 모은 것이 投入係數表(input coefficient table)이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 相互依存關係分析이라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 즉 중간거래표에서 계산되는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s)¹⁾는 각 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中間投入額을

해당 산업의 總投入額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입계수 (a_{ij})는 j 산업이 단위량 만큼의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 i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중간투입액(X_{ij})을 j 부문의 총투입액(X_j)으로 나누어준 값인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_{ij} = \frac{X_{ij}}{X_j} \quad (10)$$

a_{ij} : i 산업과 j 산업간의 투입계수

X_{ij} : i 산업에서 j 산업으로 투입된 량

X_j : j 산업의 총산출량

그리고 被傭者報酬, 營業剩餘 등 附加價值額을 總投入額으로 나눈 것을 附加價值率(所得率이라고도 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따라 창출되는 附加價值의 單位를 나타낸다.

(2) 生産誘發係數

산업연관분석에서는 投入係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투입구조의 안정성은 산업의 生産函數를 固定比率生産函數(fixed-proportions production function), 즉 일정량의 생산에 필요한 投入要素間の 代替可能性이 없고, 규모의 변화에 대해 報酬不變의 법칙이 작용하는 同次生産函數를 가정한다. 실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의 기술구조가 변화하여 투입계수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식(10)을 均衡條件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투입계수는 내생부문의 한 산업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관계, 즉 기술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적 투입계수(technical input-output coefficient), 기술적 계수(technical coefficient) 또는 투입산출계수(input-output coefficient)라고도 불린다(김태보, 1990 : 24-25 ; 김안제, 1984 : 506).

$$X_i = \sum_{j=1}^n a_{ij} X_j + D_i \quad (11)$$

X_i : i 산업의 총산출량

X_j : j 산업의 총투입량

a_{ij} : i 산업에서 j 산업간의 투입계수

D_i : i 산업의 최종수요

n : 분류된 산업의 총 수

그리고 식(11)을 行列로 표현하면

$$X = \begin{pmatrix} X_1 \\ X_2 \\ - \\ - \\ - \\ X_n \end{pmatrix}, \quad A = \begin{p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 & - & - & - \\ a_{n1} & a_{n2} & \cdots & a_{nn} \end{pmatrix}, \quad D = \begin{pmatrix} D_1 \\ D_2 \\ - \\ - \\ - \\ D_n \end{pmatrix} \quad \text{이 된다.}$$

따라서 식(11)은 식(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12)식은 다시 식(13)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但, I : 恒等行列(identity matrix)).

$$X = AX + D \quad (12)$$

$$X = (I - A)^{-1} D \quad (13)$$

여기서 逆行列係數 $(I - A)^{-1}$ 은 生産誘發係數行列 또는 레온티에프 乘數 (Leontief multiplier), 레온티에프 逆行列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直・間接效果를 나타내는 승수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역행렬계수 $(I - A)^{-1}$ 의 對角項은 각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으로 필요한 자기부문으로부터의 산출요구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逆行列의 對角項 元素는 반듯이 1 보다 커야 하며, 이때 對角元素에서 1을 뺀 나머지의 값이 바로 최종수요의 변화가 자기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역행렬의 對角元素는 절대로 負의 값을 포함되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대각원소가 負의 값을 갖게되면 j부문의 최종수요증가가 i부문에서의 산출물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가 없게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최종수요의 증가가 반드시 중간재 투입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호킨스-사이몬 조건(Hawkins-Simon condition)을 충족시켜야 한다.

(3) 産出乘數

최종수요 1단위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內生部門의 산출액을 의미하는 産出乘數(김태보, 1990 : 20-35)는 생산유발계수행렬 $(I-A)^{-1}$ 에 대해 b_{ij} 를 원소로하는 행렬 B 로 나타내면 (14)와 같다.

$$(I-A)^{-1} = B = (b_{ij})_{n \times n} \quad (14)$$

여기서 b_{ij} 는 j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i부문으로부터의 산출요구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내생부문 j에 대한 産出乘數(k_j^o)는 식(1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k_j^o &= b_{1j} + b_{2j} + \text{-----} + b_{nj} \\ &= \sum_{i=1}^n b_{ij} \end{aligned} \quad (15)$$

단, b_{ij} 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원소

식(15)와 같이 내생부문 j 의 산출승수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의 j 열 원소들의 합계이다. 따라서 최종수요의 변화가 ΔD_j 일 때 이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 내 산출액의 총변화(ΔX)는 식(16)에서와 같이 내생부문 j 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ΔD_j)에 산출승수(k_j^o)를 곱하여 얻는다.

$$\Delta X = k_j^o \times \Delta D_j \quad (16)$$

(4) 所得乘數

한 內生産業에서 最終需要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산업의 所得이 1단위 변화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 몇 단위의 소득이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所得乘數 k_j^Y 는 식(17)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k_j^Y = \frac{\sum_{i=1}^n \frac{Y_i}{X_i} \cdot b_{ij}}{(Y_j/X_j)} \quad (17)$$

단, (Y_j/X_j) : j 산업부문의 직접소득효과

식(17)에서 直接所得效果(Y_j/X_j)는 j 산업의 생산량 1단위당 소득을 표시하는 平均所得率을 의미하고, 總所得效果는 j 부문에 관련된 내생산업들의 생산유발계수에 각 산업들의 직접소득효과를 곱하여 합계한 것으로 j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변화할 때 발생하는 경제 전체의 소득변화를 뜻한다. j 산업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경제 전체의 총소득변화 $k_j^Y(Y_j/X_j)$ 는

식(18)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다.

$$\Delta Y = k_j'(Y_j/X_j)D_j \quad (18)$$

(5) 感應度係數 와 影響力係數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가 국가 및 지역경제정책과 산업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感應度係數(SD : Index of the Sensitivity Dispersion)와 影響力係數(Index of the Power Dispersion)를 이용한 前·後方聯關效果를 분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前方效果(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전체 산업 부문의 산출물에 대해 최종수요가 1단위씩 변화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i 부문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생부문의 다른 산업들에게 판매되는 평균을 전체 산업의 평균치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를 의미한다. 감응도계수의 계산은 생산유발계수행렬에서 i 행의 합계를 전체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19)과 같다.

$$SD_i = (\frac{1}{n} \sum_{j=1}^n b_{ij}) / (\frac{1}{n^2} \sum_{i=1}^n \sum_{j=1}^n b_{ij}) \quad (19)$$

단, b_{ij} 는 $(I-A)^{-1}$ 의 원소임

이때 감응도계수(SD_i)가 1 보다 큰 값을 갖게될 때 이것은 그 산업의 제품이 평균적인 산업의 제품 보다 다른 산업들의 중간투입물로 더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방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影響力係數는 한 산업부문의 산출물에 대해 1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j 산업이 다른 산업들로부터 구매하는 中間投

入의 평균이 전체 산업의 평균치에 대한 상대적 크기이다. 영향력계수는 식 (20)와 같이 생산유발계수행렬에서 j 열의 합계를 전체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PD_j = \left(\frac{1}{n} \sum_{i=1}^n b_{ij} \right) / \left(\frac{1}{n^2} \sum_{i=1}^n \sum_{j=1}^n b_{ij} \right) \quad (20)$$

영향력계수(PD_j)가 1보다 크면 그 산업은 다른 산업들로부터 평균적인 산업 보다 더 많은 중간투입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後方效果가 큰 산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感應度係數가 높은 산업은 대체로 기초원자재생산부문으로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물로 많이 수요되는 산업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많이 수요하는 중간 및 최종수요적 제조업에서 대체로 影響力係數가 높게 나타난다(김규호, 1996 : 24-29).

3. 先行研究動向

미국 하버드 대학의 Leontief 교수에 의해서 1930년대에 개발된 産業聯關分析(input-output analysis) 理論이 관광분야에 처음 적용된 것은 Harmston이 발표한 1960년의 논문 “서부지역에 있어서 여행자 지출의 간접효과(Indirects of Traveler Expenditures in a Western Community)”이며 그 뒤 Archer, Strang 등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연구는 송병락·안충영의 “한국에 있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Byung Nak Song and Chung-Yong Ahn,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Korea, Institute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1)이다(김사현, 1985 : 296-297).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도구 중에서 산업연관분석이 그 有用性を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U.N. ESCAP, 1990 : 1),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사례는 최근들어 풍부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U.N.의 산하기관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해당 지역의 국가들에게 외래관광객에 의한 국민경제의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서 産業聯關分析을 적용하도록 장려한 것도 기여하였다.

ESCAP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각국의 연구를 비교할 수 있도록 “觀光의 投入-產出分析 指針”(Guidelines on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을 마련한 바 있으며(U.N. ESCAP, 1990),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1990-1992년에 걸쳐서 관광산업이 해당 국가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내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1992, 1993), 조현순(1991), 한국관광공사(1993), Lee(1992) 등의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었다(손태환, 1997 : 179).

송병락·안충영의 연구에 뒤이어 학위논문들이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으며(권경상, 1984 ; 최승이, 1986 ; 정의선, 1990 ; 조현순, 1991 ; Lee, 1992 ; 권경상, 1994),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Hyun, 1992 ; 교통개발연구원, 1992 ; 교통개발연구원, 1993 ; 한국관광공사, 1993). 그리고 이충기·박창규(1996)의 연구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해졌다(손태환, 1997 : 8).

이밖에 지역차원에서 수행된 산업연관분석류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나 제주도(김태보, 1990 ; 정준무, 1994 ; 이강욱, 1997)와 강원도(정석중·강주훈, 1998) 등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를 대상으로 한 김규호(1996)와 이강욱(1997)의 연구 등이 있다.

관광효과분석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데, 그중 Song & Ahn(198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관광산업은

다른 수출산업에 비해 輸入依存度가 낮아 效率性이 높으며, 특히 多面性(multi-faceted)을 갖고 있는 관광부문은 한국내의 모든 산업에 매우 다양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산업간의 다양한 관계의 분석을 강조하는 산업연관모형이 분석도구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김규호, 1996 : 30).

외래관광객 지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1988년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조현순(1991)의 연구는 생산유발계수가 1.6981로 전체 산업(1.8365)과 제조업의 평균(2.0043) 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후방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0.9249,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637, 고용유발계수 0.2295 등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유발효과는 0.1327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부문 보다 낮게 나타나 관광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조현순, 1991 : 140-144).

1990년 산업연관표의 405부문을 20개부문으로 조정하여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한 권영각(199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산출승수의 경우 전체 산업의 평균이 1.8755인데 반해 관광산업은 20개 부문중 19번째인 1.5425로 낮게 나타나 관광산업이 資本集約的 산업이 아니고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득승수는 0.3291, 고용승수는 0.1130, 부가가치승수는 0.8708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체 산업 20개 부문중 고용승수는 1위, 소득 및 부가가치승수는 각각 10위 및 7위로 나타나고 있어 관광산업의 경우 고용효과와 소득 및 부가가치의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권영각, 1993 : 90-9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대체로 산출승수와 수입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연관효과와 수입의존도가 낮은 반면에 고용, 소득 및 부가가치의 승수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규호, 1996 : 31).

<표 II-2> 관광효과분석의 주요내용

구 분 연구자	활용한산업 연관표연도	산업연관표의 활용부문 수		관광관련 산업부문 수	생산유발계수		모형의 종류
		조정 전	조정 후		개방모형	폐쇄모형	
Song & Ahn (1983)	1978	-	17	1	-	-	-
최승이 (1986)	1983	396	81(20)	18	-	-	-
조현순 (1991)	1988	20	20(21)	-	1.6981	-	비경쟁형
김철원 (1991)	1987	161	23(19)	5	1.1298	-	-
현진권 (1992)	1988	161	22	9	2.018	4.035	경쟁형
이충기 (1992)	1987	161	69	6	1.5594	1.6661	비경쟁형
권영각 (1993)	1990	405	24(5)	5	1.5425	2.4050	비경쟁형
이충기, 박창규 (1996)	1990	405	24(19)	6	-	2.5279	-

주 : ()안은 관광관련산업을 통합하여 1개의 산업으로 독립화시킨 경우의 부문수임

자료 : 김규호(1996),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경주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적용-”, p.31.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표 II-2>에서와 같이 정리해 보면 연구자에 따라 관광산업의 分類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한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생산유발계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유발계수의 값이 開放模型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閉鎖模型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民間部門을 內生化하는 방법이 相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손태환, 1997 : 20)²⁾.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상의 문제점(Briassoulis, 1991 : 485-495)과 관광산업의 독립화 및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손태환, 1997 : 11-20)는 보다 정확한 경제적 효과의 측정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김규호, 1996 : 32).

2) 승수의 추계에서 유발효과를 포함하는 폐쇄모형의 사용을 강조하는 이충기의 1996년도와 1995년도 연구결과에서 생산유발계수가 각각 2.5279, 2.4953으로 다르게 나타나 폐쇄모형의 적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손태환, 1997 : 17-19).

Ⅲ. 觀光産業의 定義와 産業의 分類 및 統合

1. 外來觀光客의 動向

우리나라를 찾은 外來觀光客은 지난 1970년부터 1997년까지 27년간 연평균 12.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旅行收支는 19.4%, 1인당 지출액은 6.3%의 연평균 신장률을 나타냈다.

외래관광객은 1978년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어섰으며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는 2백34만명으로 2백만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1991년 3백19만명, 1995년 3백75만명, 1997년에 3백9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27년간 22.5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래관광객들에 의한 旅行收入도 지난 1970년 4억 800만달러(美 달러貨 기준)에서 1995년 55억8,600만달러, 그리고 1997년에는 51억1,500만달러를 기록, 27년간 109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 27년간(1970-1997)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美 달러貨 기준)은 <표 Ⅲ-1>와 같다. 1인당 평균소비액은 1970년 270달러에서 1988년 1,395달러, 1995년 1,491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997년에는 1,312달러로 다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의 주요 送出地는 1997년 기준 일본이 167만 6,434명으로 42.9%를 나타냈으며, 다음이 42만 4,258명(10.9%)의 미국, 21만 4,244명(5.5%)인 중국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208만 93명(64.7%), 여자가 113만 6,333명(35.3%)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평균 滞在日은 1997년의 경우 5.5일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이 12.7일, 중국이 11.6일, 러시아 11.2일, 일본이 3.1일로 최대 송출지인 일본 관광객들은 주로 단기 체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1998).

외래관광객중 개별방문자는 1997년 273만 3,411명으로 69.9%를 차지하고 단체방문객은 117만 4,727명으로 30.1%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차츰 단체방문객보다는 개별방문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1> 연도별 외래객 입국자 및 여행수입

년 도	입국자수(명)	여행수입(천\$)	외래객 1인당 지출액(\$)
1970	173,335	46,772	270
1971	232,795	52,383	225
1972	370,656	83,011	224
1973	679,221	269,434	397
1974	517,590	158,571	306
1975	632,846	140,627	222
1976	834,239	275,011	330
1977	949,666	370,030	390
1978	1,079,396	408,106	378
1979	1,126,100	326,006	290
1980	976,415	369,265	378
1981	1,093,214	447,640	409
1982	1,145,044	502,318	439
1983	1,194,551	596,245	499
1984	1,297,318	673,355	519
1985	1,426,045	784,312	550
1986	1,659,972	1,547,502	932
1987	1,874,501	2,299,156	1,227
1988	2,340,462	3,265,232	1,395
1989	2,728,054	3,556,279	1,304
1990	2,958,839	3,558,666	1,203
1991	3,196,340	3,426,416	1,072
1992	3,231,081	3,271,524	1,013
1993	3,331,226	3,474,640	1,045
1994	3,580,024	3,806,051	1,064
1995	3,753,197	5,586,536	1,491
1996	3,686,779	5,430,210	1,477
1997	3,908,140	5,115,963	1,312

* 1993년부터 유학경비 제외

주 : 한국관광공사(1998), 「1997한국관광통계」에서 재작성

2. 觀光産業의 定義 및 特性

관광산업은 과거에 잊혀진 忘却的 剩餘概念(concept of elusive surplus)이 새시대를 맞아 산업으로 부상되면서, 관광자원이란 稀少價值(scarcity value)에 때때로 附加的 割増(premium)까지 붙여 임대하는 經濟的 賃貸(economic rent)으로써 (Gray 1982 : 105-130) 특수한 산업형태를 띠게 되었다. (손대현, 1995 : 142)

따라서 관광산업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나 單一産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광산업에는 특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산출물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광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Chadwick, 1987 : 55)고 주장하기도 하며, 관광산업의 모든 활동이나 설비는 이미 표준산업분류상에 충분히 할당되어 계산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을 다른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독립시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조현순, 1991 : 21).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적절한 정의가 필요한데, 관광산업의 정의는 관광, 관광객 등과 같은 기본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어 여행의 목적, 기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분류는 국가와 관광의 기본적 구성요소, 관광주체의 행동단계, 관광산업의 특화정도, 상품유형, 관광산업의 계층구조 등 접근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분류에 의한 기본적 관광산업은 대체로 공통점이 많다(권영각, 1993 : 55 ; 김규호, 1996 : 49).

관광이 일반적인 여행 및 이주와 다른 점은 관광의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

이다. 즉 실무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광자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는 거주지, 여행거리, 여행목적 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권의 공간적 범위를 정주생활권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로 보고 여행목적은 純粹觀光과 兼用目的의 旅行을 관광으로 정의하는 견해(김사헌, 박석희, 1986 : 18-27)가 관광산업의 정의를 위한 관광의 기본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이같은 관광의 개념에 기초해 관광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관광산업은 일상적 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거주지를 떠나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활동들, 교통, 상품과 서비스, 그 밖의 시설,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의 統合的인 amalgam”(National Tourism Policy Study, 1976)이라 하고 있으며 ‘라이퍼’는 다시 “관광자의 특정한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모든 기업조직, 시설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Leiper, 1979 : 403-404 ; 조현순, 1991 : 21).

따라서 觀光産業에는 우선 관광여행의 일부 또는 모두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교통업, 숙박업, 여행알선업 등이 이에 속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 관광객 수용태세상의 제 기능을 높이고 관광왕래로 인하여 지탱해 가는 업종으로서 요식업, 관광기념품 판매업, 오락 유흥업, 종합휴양업, 기타 각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조현순, 1991 : 22).

관광산업은 이처럼 관광객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여러 업종과 기관으로 구성되는 複合的 産業이라 할 수 있으며(최승이, 1986 : 34) 이것이 곧 관광산업의 특징이라 하겠다.

3. 産業分類 및 統合

관광산업의 분류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표 III-2>에서와 같이 대체로 숙박 및 음식과 여객운송, 문화 및 오락서비스, 소매와 관련된 부문

을 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판매 서비스와 관련된 소매부문의 경우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와튼경제예측연구소(WEFA),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관광관련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분류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대체로 관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권영각, 1993).

<표 III-2> 국가별 관광산업의 분류

국 가	관 광 산 업
UN ESCAP	호텔 및 숙박, 식당, 오락시설, 쇼핑, 국내 및 국제교통
UN 국제표준산업분류	숙박·식음료, 교통, 여행서비스, 위락·문화
미국(관광정보센터의 TEIM)	숙박·식음료, 교통, 여행관련기관, 위락·문화, 기타(판매서비스)
캐나다	숙박, 식음료서비스, 운수, 여행서비스, 레크레이션·오락, 소매상품
일본(관광협회)	숙박·식음료, 교통, 여행관련기관, 위락·문화, 기타(판매서비스)
WEFA	교통, 숙박, 식음, 문화오락
태국	여행사, 레스토랑, 호텔 및 숙박업, 오락·레크레이션, 개인서비스
말레이시아	농·축산업, 수산업, 기타식품, 음료, 섬유, 석유제품과 석탄, 기타 수공예제품, 도소매업
인도네시아	숙박, 식음료, 사회 및 기타서비스, 오락·레크레이션서비스, 운송서비스, 무역
인도	호텔 및 기타숙박시설, 레스토랑, 여행사, 교통수송서비스, 관광리조트 및 관광단지, 오락시설, 쇼핑시설, 회의 및 컨벤션시설, 모험 및 레크레이션 스포츠 시설물, 안내서비스
파키스탄	호텔, 항공수송, 레스토랑, 철도, 양모 및 면섬유, 유상교통, 금속상품, 기타 수공업품, 기타, 도소매업, 플라스틱상품을 포함한 비금속상품
필리핀	관광버스/자동차 서비스, 항공수송, 여행사, 관광상점, 레크레이션 서비스, 레스토랑, 카페 등,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주 : 1) 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 TEIM : Travel Economic Impact Model

3) WEFA : Wharton Economic Forecasting Associates

자료 : 김규호(1996),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경주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적용-”, p.51.

한편 관련 연구에서 관광산업의 분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여객운송업, 운수 관련서비스, 문화 및 오락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이충기·박창규, 1996). 국가별 관광산업의 분류와 산업연관분석

을 위한 관광산업의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광관련산업은 음식 및 숙박, 여객운송, 문화 및 오락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보고 있다(김규호·김사헌, 1998 : 156-157).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타산업간의 경제적 영향 평가 비교 분석, 관광산업내의 경제적 영향 평가, 관광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과 같이 연구의 필요에 따라 관광과 관련 있는 여러 업종을 統合(aggregation)하여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측정할 때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산업연관표에서 관광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표 III-3> 산업연관분석 사례별 관광산업분류

인 구 자	관 광 산 업 분 류
Ruiz(1985)	숙박업, 교통업, 무역·상업, 유흥·레크레이션
Smith(1988)	숙박업, 교통업, 여행서비스업, 음식점업, 레크레이션·오락,소매점
Stoll(1988)	레크레이션 숙박, 트레일러, 장비제조업, 레크레이션사업·서비스
Fesenmaier et al.(1989)	숙박업, 교통업, 음식점업, 잡화업, 임대업, 낚시관련사업
Johnson & Obermiller (1989)	숙박업, 식음료업, 소매업, 유흥업, 장비대여업, 수상서비스업
Heng and Low(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레크레이션, 소도매, 교통통신, 기타서비스
UN(1990)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업, 쇼핑업, 국내교통업, 국제교통업
Lee(1992)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도로교통업
Hurley et al.(1994)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통업, 기타서비스업
교통개발연구원(1992)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쇼핑업(소매업)
한국관광공사(1993)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오락문화서비스업,쇼핑업(소매업)
권경상(1994)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안중윤외 3인(1995)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쇼핑업, 문화오락서비스업*
Lee and Kwon(1995)	호텔, 레스토랑, 교통통신, 쇼핑, 유흥(문화오락서비스)

자료 : -이충기(1996), 한국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p.33

-김규호(1996),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경주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적용-”, p.52.

산업연관표에서 관광산업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규모와 이에 대한 投入-産出의 결과도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김남조, 1998 : 173).

산업의 통합은 去來表의 각 항목을 합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의 개별적 특성이 어느 정도 상실된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상실하지 않는다고거나 겉치레의 정보만이 상실된다는 것을 보여야 절대적인 의미에서 통합이 정당화될 수 있다(Stone, 186 : 139).

본 연구에서는 199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402개 부문 국산거래표를 기준으로 <표 III-6>과 같이 별도로 독립시킨 18개 부문으로 분류·통합했다.

관광산업에는 소매, 음식점, 숙박, 철도여객운송, 도로여객운송,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문화서비스(국공립, 기타), 영화,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기타 오락서비스 등 14개 부문을 포함시켰다.

<표 III-4> 관광진흥법에서의 관광산업의 분류

구 분	종 류
여 행 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1종 및 2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용역업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사진업, 자동차정류장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전문관광식당업, 일반관광식당업

자료 : 김규호(1996),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경주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 모형의 적용-”, p.52.

<표 III-5> 본 연구에서의 분류와 산업연관표와의 대비

관광산업	산업연관표와 대비(402 및 168부문)
소매업(쇼핑)	소 매(331)
음식점업	음식점(332)
숙박업	숙 박(333)
교통업	철도여객운송(334), 도로여객운송(336),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338), 항공운송(340), 기타 운수관련서비스(346)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문화오락서비스(386-391)

주 : 한국은행(1998), 1995년 산업연관표, 402 및 168 부문을 토대로 작성

<표 III-6> 산업연관표 402 기본분류와 18개 산업부문 대응표

번 호	402 부문	산 업 부 문
1	1 - 30	농 립 수 산 업
2	31 - 45	광 산 품
3	46 - 88	음 식 료 품
4	89 - 119	섬 유 및 가 죽
5	120 - 134	목 재 및 종 이 제 품
6	135 - 138	인 쇄, 출 판 및 복 제
7	139 - 179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8	180 - 195	비 금 속 광 물 제 품
9	196 - 227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10	228 - 305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구, 가구 및 기타제조업
11	306 - 312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2	313 - 329	건 설
13	330	도 매
14	335, 337, 339, 341-345, 347-351	운 수, 보 관 및 통 신
15	352 - 369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6	370 - 385	정 부 서 비 스
17	392 - 402	기 타 서 비 스
18	331, 332, 333, 334, 336, 338, 340, 346, 386-391	관 광 산 업

주 : -운수, 보관 및 통신 = 335:철도화물운송, 337:도로화물운송, 339:외항운송, 341:육상운수보조서비스, 342:수상운수보조서비스, 343:항공운수보조서비스, 344:하역, 345:보관 및 창고, 347:우편, 348:전신·전화, 349:부가통신, 350:방송(비영리), 351:방송(산업)

-관광산업 = 331:소매, 332:음식점, 333:숙박, 334:철도여객운송, 336:도로여객 운송, 338: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340:항공운송, 346:기타운수관련서비스, 386:문화서비스(국공립), 387:문화서비스(기타), 388:영화, 389: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390: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391:기타오락서비스

IV. 産業聯關分析에 의한 觀光産業의 經濟的 效果分析

1. 觀光産業의 生産誘發效果

최종수요 1단위의 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과급효과를 가리키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은 <附表 IV-1>과 같다. 生産誘發係數行列은 모든 원소가 正의 값을 갖고 있어 최종수요의 증가가 중간수요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경제적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逆行列의 對角元素 b_{ij} 의 값이 항상 1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과 호킨스 - 사이몬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附表 IV-1>과 같은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제2장의 식(16)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승수를 구할 수 있다. 즉 產出乘數(output multiplier)는 어떤 산업 부문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직·간접으로 유발된 전체 산업부문의 산출액을 의미하고, 이것은 생산유발계수행렬에서 列의 元素 합과 같다. 따라서 산출승수는 直接效果(direct effects)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s)의 합으로 구성되어진다. 여기서 직접효과는 기술계수행렬(technical coefficients matrix)의 해당부문 列의 모든 원소를 합한 값에 최초의 변화단위(initial change) 1을 더한 것이며, 間接效果는 누적적인 간접변화의 합으로 $[(I-A)^{-1} - (I+A)] = [B - (I+A)]$ 행렬에 해당되는 부문의 列의 합으로 계산된다(김규호, 1996 : 74).

199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산출승수 평균은 1.7878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8개 개별산업부문에 대해 각각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한 각 산업의 직·간접 산출액을 단순 산술평균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부문별 産出乘數는 기타서비스 2.3043,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2.2075, 건설 2.0390, 음식료품 2.0313, 비금속광물제품 1.9756, 인쇄·출판 및 복제 1.96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운수·보관 및 통신은 1.4071, 도매는 1.5033, 정부서비스는 1.5109 등의 낮은 산출승수를 나타내 산출효과가 적은 부문임을 알 수 있다.

<표 IV-1> 산출승수

산 업 부 문	직 접 효 과	간 접 효 과	총 효 과
1 농 림 수 산 업	1.3201	0.2494	1.5695(13)
2 광 산 품	1.3076	0.2274	1.5349(15)
3 음 식 료 품	1.6099	0.4214	2.0313 (4)
4 섬유 및 가죽	1.5113	0.4067	1.9179 (8)
5 목재 및 종이제품	1.4594	0.3374	1.7968 (9)
6 인쇄, 출판 및 복제	1.5430	0.4254	1.9685 (6)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1.4035	0.2829	1.6865(10)
8 비금속 광물제품	1.5605	0.4151	1.9756 (5)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1.5907	0.6168	2.2075 (2)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4994	0.4329	1.9323 (7)
11 전기, 가스, 수도업	1.3733	0.2666	1.6399(11)
12 건 설	1.5574	0.4816	2.0390 (3)
13 도 매	1.2998	0.2035	1.5033(17)
14 운수, 보관 및 통신	1.2392	0.1679	1.4071(18)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160	0.2318	1.5478(14)
16 정 부 서 비 스	1.2783	0.2326	1.5109(16)
17 기 타 서 비 스	1.7211	0.5832	2.3043 (1)
18 관 광 산 업	1.3645	0.2431	1.6077(12)
평 균	1.4419	0.3458	1.7878

주 : ()안은 각 부문별 순위임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산출승수가 1.6077로 전체 산업의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으며, 18개 산업부문중 12번째를 기록, 다른 산업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간접의 산출효과의 경우에도 각각 1.3645, 0.2431로 산출승수(총효과)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관광산업의 직·간접 산출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觀光産業의 所得效果

관광산업의 所得效果는 소득승수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所得乘數는 부가가치부문에 포함된 피용자보수부문만을 분리해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구하고, 이렇게 도출된 소득승수계수의 대각행렬을 생산유발계수에 곱해 구한다. 즉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소득부문의 변화를 나타내는 소득승수는 제Ⅱ장 식(17)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구해진 소득승수계수는 <附表Ⅳ-2>와 같다.

<附表Ⅳ-2>에서 도출된 소득승수를 표로 정리한 소득효과는 <표Ⅳ-2>와 같다.

<표Ⅳ-2>을 보면 勞動集約的 産業인 관광산업의 경우 總所得效果와 直接所得效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직접효과는 0.2893, 간접효과는 0.1242 만 규모의 소득창출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관광산업의 총효과 0.4135는 전산업의 평균 소득유발계수 0.3451를 웃돌며, 정부서비스 0.7119, 인쇄·출판 및 복제 0.4539, 건설 0.4322 등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광산업의 소득효과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즉 소득효과가 큰 부문으로는 정부서비스, 인쇄·출판 및 복제, 건설 등을 들 수 있으며, 소득효과가 적은 부문은 농림수산업,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전기·가스·수도업, 음식료품 순임을 알 수 있다.

<표 IV-2> 산업부문별 소득효과

	산 업 부 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	농 립 수 산 업	0.0877	0.0852	0.1729(18)
2	광 산 품	0.2516	0.0965	0.3481 (9)
3	음 식 료 품	0.0925	0.1392	0.2317(15)
4	섬유 및 가죽	0.1809	0.1603	0.3413(10)
5	목재 및 종이제품	0.1406	0.1355	0.2761(14)
6	인쇄, 출판 및 복제	0.2767	0.1773	0.4539 (2)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0.0998	0.1098	0.2096(17)
8	비금속 광물제품	0.1813	0.1872	0.3686 (7)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0.1136	0.1774	0.2910(13)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1430	0.1641	0.3071(12)
11	전기, 가스, 수도업	0.1083	0.1093	0.2176(16)
12	건 설	0.2467	0.1865	0.4332 (3)
13	도 매	0.2853	0.1070	0.3923 (5)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2765	0.0797	0.3562 (8)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566	0.1177	0.3742 (6)
16	정 부 서 비 스	0.6188	0.0931	0.7119 (1)
17	기 타 서 비 스	0.0932	0.2197	0.3128(11)
18	관 광 산 업	0.2893	0.1242	0.4135 (4)
	평 균	0.2079	0.1372	0.3451

주 : ()안은 각 부문별 순위임

3. 觀光産業의 附加價值效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부문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의 승수효과를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의 계수는 소득승수를 산출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의 투입계수(부가가치/총투입액)를 적용하여 구하고, 이렇게 유도된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생산유발계수행렬에 곱하여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 부문의 증가가 필요한 양을 나타내는 <附表 IV-3>과 같이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을 작성하였다.

<표 IV-3>에서 보면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전산업 평균은 0.7966(총효과)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직접효과가 0.2960으로 전체 평균 0.2479보다 높고 간접효과도 0.5917로 평균 0.5520보다 높게 나타나 총효과 0.8878은 전체 18개 산업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附加價值效果가 높은 산업은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9533, 도매 0.9342, 광산물 0.9290, 농림수산업 0.9117, 정부서비스 0.8996 등의 순이다. 반면 부가가치효과가 적은 부문으로는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0.5971, 목재 및 종이제품 0.6182, 섬유 및 가죽제품 0.667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6717을 들 수 있겠다.

<표 IV-3> 산업부문별 부가가치효과

산 업 부 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 과
1 농 림 수 산 업	0.5682	0.3436	0.9117 (4)
2 광 산 품	0.4332	0.4957	0.9290 (3)
3 음 식 료 품	0.1937	0.6152	0.8089 (9)
4 섬유 및 가죽	0.1209	0.5461	0.6670(16)
5 목재 및 종이제품	0.1537	0.4645	0.6182(17)
6 인쇄, 출판 및 복제	0.1323	0.6756	0.8079(10)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0.2152	0.3819	0.5971(18)
8 비금속 광물제품	0.1883	0.6398	0.8281 (8)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0.1384	0.5332	0.6717(15)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1845	0.5118	0.6963(14)
11 전기, 가스, 수도업	0.3764	0.3922	0.7686(12)
12 건 설	0.1661	0.6854	0.8515 (7)
13 도 매	0.3923	0.5418	0.9342 (2)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3362	0.4672	0.8034(11)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4213	0.5320	0.9533 (1)
16 정 부 서 비 스	0.0651	0.8345	0.8996 (5)
17 기 타 서 비 스	0.0805	0.6843	0.7648(13)
18 관 광 산 업	0.2960	0.5917	0.8878 (6)
평 균	0.2479	0.5520	0.7999

주 : ()안은 각 부문별 순위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효과가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 직접적인 收入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유

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관광산업은 다른 제조업부문과는 달리 원료수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광산업의 外貨稼得率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觀光産業의 輸入誘發效果

최종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의 효과를 의미하는 輸入誘發效果는 전체 산업 평균이 0.2001로 나타났다.

<표 IV-4> 산업부문별 수입유발효과

산 업 부 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 과
1 농 림 수 산 업	0.0241	0.0642	0.0883(15)
2 광 산 품	0.0076	0.0634	0.0710(16)
3 음 식 료 품	0.1038	0.0873	0.1911(10)
4 섬유 및 가죽	0.1869	0.1461	0.3330 (3)
5 목재 및 종이제품	0.2464	0.1354	0.3818 (2)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480	0.1441	0.1921 (9)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0.2815	0.1214	0.4029 (1)
8 비금속 광물제품	0.0699	0.1021	0.1719(11)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0.1573	0.1710	0.3283 (4)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1731	0.1307	0.3037 (5)
11 전기, 가스, 수도업	0.1420	0.0894	0.2314 (7)
12 건 설	0.0298	0.1187	0.1485(12)
13 도 매	0.0226	0.0432	0.0658(17)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1481	0.0485	0.1966 (8)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61	0.0407	0.0467(18)
16 정 부 서 비 스	0.0379	0.0626	0.1004(14)
17 기 타 서 비 스	0.1052	0.1300	0.2352 (6)
18 관 광 산 업	0.0501	0.0621	0.1122(13)
평 균	0.1022	0.0978	0.2001

주 : ()안은 각 부문별 순위임

<표 IV-4>에서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는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0.4019, 목재 및 종이제품 0.3818, 섬유 및 가죽 0.3330,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0.3283,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3057 순임을 알 수 있다. 수입유발효과가 적은 산업으로는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467, 도매 0.0658, 광산품 0.0710, 농림수산업 0.08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수입유발효과는 직접효과 0.0501, 간접효과 0.0621, 총효과 0.1123으로 전체 18개산업중 13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관광산업은 활성화되어도 수입을 유발하는 경향이 적어 외화가득율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5. 觀光産業의 前・後方 聯關效果

산업간의 의존관계를 感應度係數와 影響力係數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전방산업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전체 산업부문에 대해 단위량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이 모든 산업으로부터 받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제 II장의 식(19)에서와 같이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의 行의 평균값을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표 IV-5>에서와 같이 감응도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로 1.8771이며, 그 다음으로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1.6961,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1.3513,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1497, 목재 및 종이제품 1.103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은 다른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 0.6759, 광산품 0.6806, 건설 0.7087 등의 순으로 다른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경우 전체 산업의 평균치 보다 낮은 0.9040으로 전체 18개 산업에서 10번째로 나타나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산업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전·후방 연관효과

산 업 부 문 별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
1 농 림 수 산 업	0.9880 (7)	0.8779(13)
2 광 산 품	0.6806(17)	0.8585(15)
3 음 식 료 품	0.9969 (6)	1.1362 (4)
4 섬유 및 가죽	0.7726(14)	1.0728 (8)
5 목재 및 종이제품	1.1032 (5)	1.0050 (9)
6 인쇄, 출판 및 복제	0.7048(16)	1.1010 (6)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1.6951 (2)	0.9433(10)
8 비금속 광물제품	0.8144(12)	1.1050 (5)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1.3513 (3)	1.2348 (2)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1497 (4)	1.0808 (7)
11 전기, 가스, 수도업	0.9187 (9)	0.9173(11)
12 건 설	0.7087(15)	1.1405 (3)
13 도 매	0.7962(13)	0.8408(17)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8923(11)	0.7870(18)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8771 (1)	0.8658(14)
16 정 부 서 비 스	0.6759(18)	0.8451(16)
17 기 타 서 비 스	0.9705 (8)	1.2889 (1)
18 관 광 산 업	0.9040(10)	0.8992(12)

주 : ()안은 각 부문별 순위임

다음으로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해 단위량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영향력계수는 제 II장의 식(20)에서와 같이 생산유발계수행렬의 列의 평균값을 전체 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해진다. 따라서 영향력계수가 1 보다 큰 것은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평균적인 산업보다 더 많이 중간투입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방효과가

큰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러한 산업에 중간투입물을 공급하는 많은 산업들의 생산량도 따라서 증가하는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한다.

18개 산업중 영향력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타서비스 1.288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1.2348, 건설 1.1405, 음식료품 1.1362, 비금속광물 1.1050 등의 순이며, 영향력계수가 낮게 나타난 부문은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도매, 정부서비스, 광산품 등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12위인 0.8992로 전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성장이 주는 후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外來觀光客 消費支出에 의한 經濟的 波及效果

1. 外來觀光客에 의한 經濟的 波及效果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전국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1995년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산출, 소득, 부가가치, 수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외래관광객의 소비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된 총 직·간접 생산유발액은 6조 9,011억 96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5년 외래관광객 375만 3,197명이 지출한 55억 8,653만 6,000달러(4조 2,993억 9,800만원)³⁾를 생산유발계수행렬의 마지막 열에 곱한 개별 투입 부문별 생산유발액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5년 외래관광객 소비지출로 관광산업 자체에는 전체 산출액의 64.4%인 4조 491억 8,5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고, 다음으로는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8,748억 3,000만원,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이 3,585억 2,400만원, 운수·보관 및 통신이 2,554억 8,500만원의 파급효과를 얻었다.

또한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에는 1,814억 9,300만원, 전기, 가스, 수도업에는 1,181억 5,700만원의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광산품 48억 5,300만원, 비금속 광물제품 188억 4,300만원, 섬유 및 가죽 197억 4,600만원, 정부서비스 388억 8,600만원, 도매 478억 5,700만원 부문은 생산파급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 연평균 환율을 1달러당 769.60원으로 계산

외래관광객 지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급효과에서는 관광산업자체가 1조 2,870억 7,400만원을 차지, 총 소득과급액 1조 7,776억 2,500만원의 72.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급효과가 큰 부문으로는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2,244억 5,200만원으로 12.6%, 운수·보관 및 통신이 706억 4,300만원,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이 357억 8,600만원,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이 259억 4,900만원 등의 순이며, 광산품 12억 2,100만원, 농림수산업(28억 8,700만원, 비금속 광물제품 34억 1,700만원 등의 순으로 소득과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로 인하여 발생한 총직·간접 부가가치 과급액은 3조 8,169억 5,100만원에 달했으며, 관광사업 자체부문에는 2조 6,042억 4,600만원을 발생시켜 68.2%의 과급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가가치 과급효과가 큰 부문으로는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930억 2,300만원, 운수·보관 및 통신 1,565억 3,300만원,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1,129억 2,500만원 순이며, 광산품 33억 2,300만원, 섬유 및 가죽제품 59억 6,100만원, 비금속 광물제품 69억 6,400만원의 순으로 부가가치 과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로 발생한 직·간접 수입유발액은 4,824억 4,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관광산업 자체에 의해 발생한 유발액은 46.2%인 2,230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 다음으로는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이 1,009억 2,500만원으로 높게 나왔으며, 운수·보관 및 통신이 378억 4,300만원,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이 314억 1,300만원, 기타 서비스 215억 1,200만원 순으로 수입유발을 보였다.

수입유발이 적은 부문으로는 광산품 3,700만원, 농림수산업 7억 9,200만원, 도매 10억 8,200만원, 비금속 광물제품 13억 1,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표 V-1>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백만원)

	구 분	산 출	소 득	부가가치	수 입
1	농 립 수 산 업	32,925	2,887	21,594	792
2	광 산 품	4,853	1,221	3,323	37
3	음 식 료 품	60,685	5,616	17,371	6,300
4	섬유 및 가죽	19,746	3,573	5,961	3,690
5	목재 및 종이제품	69,614	9,785	20,483	17,149
6	인쇄, 출판 및 복제	63,030	17,438	25,776	3,026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358,524	35,786	112,925	100,925
8	비금속 광물제품	18,843	3,417	6,964	1,317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57,733	6,557	14,550	9,081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81,493	25,949	59,434	31,413
11	전기, 가스, 수도업	118,157	12,792	57,266	16,780
12	건 설	55,622	13,722	22,961	1,658
13	도 매	47,857	13,652	32,428	1,082
14	운수, 보관 및 통신	255,485	70,643	156,533	37,843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74,830	224,452	593,023	5,324
16	정 부 서 비 스	38,886	24,061	26,591	1,473
17	기 타 서 비 스	204,497	19,053	35,521	21,512
18	관 광 산 업	4,449,185	1,287,074	2,604,246	223,044
	합 계	6,911,964	1,777,675	3,816,951	482,447

2. 分析結果에 대한 論議

개방모형에 의해 산업부문 파급효과를 분석한 권영각(1993)은 관광산업의 산출승수를 1.5425, 전산업 평균을 1.8755로 보여주고 있다. 또 조현순(1991)은 21×21부문 분석에서 관광산업의 산출승수를 1.6981, 전산업 평균을 1.8364로 산출했다.

IV장에서 도출된 산출승수를 이들 연구사례와 비교하면 관광산업의 산출승수 1.6077은 권영각 사례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현순 사례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도와 1995년 産業聯關表와 産業統合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1990년에 비해 1995년도의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안정되어 있어

産出效果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의 통합에서 전기통신업을 본 연구에서는 운수·보관 및 통신부문에 둔 반면 권영각은 관광산업에 포함시킨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현순의 경우는 기본부문통합 대신 산업연관표 20통합부문에 관광산업을 독립시켜 21×21부문을 만들었으며, 소매를 도소매 부문에 그대로 둬으로써 상이한 산출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의한 최종수요 100만원 증가에 의해 전체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160만 7,700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효과 또한 권영각은 관광산업 0.3290, 전산업 평균 0.3328로 산출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0.4135, 전산업 평균 0.3451로 높게 산출되었다.

부가가치효과는 권영각이 관광산업 0.8708, 전산업 평균 0.7908로 도출했으며 조현순은 관광산업 0.8678, 전산업 평균 0.7866으로 산출, 본 연구는 관광산업 0.8878, 전산업 평균 0.7999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수입유발효과는 조현순이 관광산업 0.0011, 전산업 평균 0.1322로 산출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0.1122, 전산업 평균 0.2001로 도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간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분석에서는 관광산업이 0.9010으로 권영각 1.0959보다는 낮게 나왔으나 조현순 0.7960 보다는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 후방연관효과를 보여주는 영향력 계수는 본 연구에서 0.8992가 나왔으며 권영각 0.8225, 조현순 0.9249와 비교하면 권영각 사례보다는 높고, 조현순 사례보다는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승수 도출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자간 산업통합이 다르고 연구대상 연도의 경제규모가 상이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IV장에서 도출된 산출승수를 1995년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과 곱해 산출

한 관광산업의 타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는 총 6조 9,119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광자체부문 파급효과는 4조 4,491억 8,500만원으로 6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파급효과는 1조 7,776억 7,500만원이며, 관광자체부문 기여도는 72.4%인 1조 2,870억 7,4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외래관광객 소비지출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부가가치파급효과는 3조 8,169억 5,100만원이며, 관광산업자체에 파급된 효과는 2조 6,042억 4,600만원이다. 수입유발효과는 4,824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외래관광객 1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원을 지출할 때 생산유발 1,607,700원, 소득파급 413,500원, 부가가치파급 887,800원, 수입유발 112,200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은 수출과 같으며 파급효과가 큰 최종수요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도 외래관광객의 적극적 유치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명분이 되기도 한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업종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관광산업의 經濟的 波及效果分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산업연관표에서 기술적으로 분류되어 온 관광관련 산업이 任意的으로 再分類되어 왔다.

관광산업의 임의적 재분류와 통합은 파급효과의 산출결과를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도록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남조(1998 : 186)는 파생적으로 산출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산출승수는 일반승수로 볼 때 대략적으로 1.63에서 1.52로 나타나며, 소득승수는 0.42에서 0.33, 부가가치승수는 0.94에서 0.79로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광산업의 산출승수는 1.6077, 소득승수는 0.4135, 부가가치승수는 0.8878로 산출, 소득, 부가가치승수 모두 김남조가 밝힌 범위 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관광산업부문의 기존 연구자와 약간의 상이한 분류체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과급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계나 정책당국에서 관광산업의 분류를 標準化하는 노력이 따라준다면 관광산업의 과급효과 분석은 안정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관광산업의 영향력을 산업구조변화속에서 時系列的 分析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안정된 영향력 평가결과는 향후 관광산업의 진흥과 외래관광객 유치전략수립 자료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2> 산업부문별 승수비교

산 업 부 문 별	산 출	소 득	부가가치	수입유발
1 농 림 수 산 업	1.5695(13)	0.1729(18)	0.9117 (4)	0.0883(15)
2 광 산 품	1.5349(15)	0.3481 (9)	0.9290 (3)	0.0710(16)
3 음 식 료 품	2.0313 (4)	0.2317(15)	0.8089 (9)	0.1911(10)
4 섬유 및 가죽	1.9179 (8)	0.3413(10)	0.6670(16)	0.3330 (3)
5 목재 및 종이제품	1.7968 (9)	0.2761(14)	0.6182(17)	0.3818 (2)
6 인쇄, 출판 및 복제	1.9685 (6)	0.4539 (2)	0.8079(10)	0.1921 (9)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1.6865(10)	0.2096(17)	0.5971(18)	0.4029 (1)
8 비금속 광물제품	1.9756 (5)	0.3686 (7)	0.8281 (8)	0.1719(11)
9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2.2075 (2)	0.2910(13)	0.6717(15)	0.3283 (4)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9323 (7)	0.3071(12)	0.6963(14)	0.3037 (5)
11 전기, 가스, 수도업	1.6399(11)	0.2176(16)	0.7686(12)	0.2314 (7)
12 건 설	2.0390 (3)	0.4332 (3)	0.8515 (7)	0.1485(12)
13 도 매	1.5033(17)	0.3923 (5)	0.9342 (2)	0.0658(17)
14 운수, 보관 및 통신	1.4071(18)	0.3562 (8)	0.8034(11)	0.1966 (8)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478(14)	0.3742 (6)	0.9533 (1)	0.0467(18)
16 정 부 서 비 스	1.5109(16)	0.7119 (1)	0.8996 (5)	0.1004(14)
17 기 타 서 비 스	2.3043 (1)	0.3128(11)	0.7648(13)	0.2352 (6)
18 관 광 산 업	1.6077(12)	0.4135 (4)	0.8878 (6)	0.1122(13)
평 균	1.7878	0.3451	0.7999	0.2001

주 : ()안은 각 부문별 순위임

VI. 結 論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觀光이 부각되면서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는 일을 통한 의식주 중심사회에서 탈피하여 餘暇에 의한 개성있는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사회, 즉 관광중심의 여가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특히 허만칸(Herman Kahn)은 「The Year 2000」에서 2000년대의 최대산업은 관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관광산업을 國家戰略産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UN회원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관광산업이 제 1 또는 제 2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관광진흥정책은 관광객의 量的 擴大에만 치우쳐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大衆觀光의 확산과 세계화·지방화·개성화 등의 수요변화에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온 관광정책은 곧 관광산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관광산업의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다양하고 중요한 파급효과를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에 끼쳐왔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왔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精緻한 분석도구의 개발이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産業聯關分析 등 강력하고 유용

한 경제분석기법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영향력 평가 연구 등은 비록 낮은 감이 있으나 관광산업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측면에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이 관광산업과 전 산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외래관광객이 소비지출한 관광수입이 국내산업에 얼마만큼의 생산유발, 소득, 부가가치를 가져오는가를 산출하고 다른 산업과의 관광산업연관관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의 대상이 된 산업연관표는 1998년에 나온 한국은행의 1995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했다. 1995년 산업연관표는 전체산업을 402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관광과 관련이 있는 14개 부문을 관광산업으로 재분류해 묶은 뒤 전체 산업을 18개 부문으로 분류·통합했다.

관광산업에는 소매, 음식점, 숙박, 철도여객운송, 도로여객운송,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문화서비스(국공립, 기타), 영화,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기타 오락서비스 등 14개 부문을 포함시켰다.

일부 부문은 관광산업으로 분류하기에 다소 무리한 감도 있으나 관광객의 소비지출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시켰다. 특히 외래 관광객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객으로 간주해 방문목적에 관계없이 외래 관광객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문별 및 통합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소득효과, 부가가치효과, 수입유발효과를 분석하고 부문별 및 관광산업의 타 산업부문에의 전·후방연관효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어 산출된 각 효과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의 타 산업부문에의 파급효과를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알아 보았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나타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산출승수가 1.6007로 전산업 평균(1.7878)보다 낮고 전체 18개 산업부문 중 12위를 차지해 생산유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득효과에서는 관광산업이 소득승수 0.4235로 4위를 기록, 전산업 평균 0.3451를 상회하여 관광산업이 소득효과가 큰 산업임을 보여주었다.

부가가치효과도 관광산업이 0.8878로 전산업 평균 0.7999를 상회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수입유발효과에서는 관광산업의 수입유발승수가 0.1122, 전산업 평균이 0.2001로 도출되어 관광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면 전체 산업부문내에서 관광산업은 소득·부가가치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수입유발은 적고 산출효과는 전산업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분석에서는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가 관광산업이 0.9010으로 18개 부문중 10위,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0.8992로 12위를 차지 관광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는 산업간 평균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산출, 소득,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를 적용,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1995년 외래객 지출 4조 2,939억 8,100만원에 의해 전체 산업부문에 6조 9,119억 6,4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으며, 소득부문에 1조 7,776억 7,500만원, 부가가치부문에 3조 8,169억 5,100만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유발은 4,824억 4,700만원에 그쳐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이 국내산업 전부분의 생산·소득·부가가치에 큰 파급효과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선행 연구 사례와 비교하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권영각의 연구 1.5425보다는 높고, 조현순의 1.6981보다는 낮은 1.6077로 나타났다.

또 소득효과는 0.4135로 권영각 0.3290보다 높게 나왔으며, 부가가치효과 0.8878도 권영각 0.8708, 조현순 0.8678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수입유발효과는 조현순이 전산업 평균 0.1322, 관광산업 0.0011로 산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산업 평균 0.2001, 관광산업 0.1122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간의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0.9010으로 권영각 1.0959보다는 낮게, 조현순 0.7960보다는 높게 나왔다.

또 후방연관효과를 보여주는 영향계수는 본 연구에서 0.8992로 도출돼 권영각 0.8225보다는 높고, 조현순 0.9249보다는 낮았다.

이것은 곧 연구자별로 산업분류 및 통합에 차이가 있고, 기준이 된 산업연관표가 본 연구에서는 1995년, 권영각 1990년, 조현순 1988년 등으로 달라서, 그 동안 전체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 산업간 구조변화 등의 변수가 내포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래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이와 같은 차이를 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6조 9119억원의 생산파급효과, 1조 7776억원의 소득파급효과, 3조 8169억원의 부가가치파급효과, 4,824억원의 수입유발효과도 외래 관광객의 양적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지출액의 증가로 기존 연구 사례보다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수입유발효과가 낮은 반면

소득,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아 다른 부문과의 連繫가 정책적으로 잘 이뤄진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屬性을 정책적으로 잘 육성해야 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산업간의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산업연관분석은 유용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지만 관광산업에의 적용에는 일정한 限界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곧 본 연구의 한계와 연결된다. 외래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으로 분석함에 있어 우선 관광관련산업의 분류와 통합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소매부문의 경우 외래 관광객의 소비지출과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매부문 전체를 관광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효과가 과대 추정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으로 분류된 14개 부문 모두 이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분류·통합 및 관광관련산업내의 외국인 소비지출 점유비율 등 보다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연구성과가 지역단위의 영향력 분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분석기법의 응용과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국단위의 영향력 평가와 지역단위의 영향력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관광객 유치나 관광개발, 산업구조조정 등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강광하(1991), 「산업연관분석론」, 비봉출판사.

강병주·손희준(1992), 「지역경제분석기법 및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연구원.

권영각(1993),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한국관광공사.

김규호(1996),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 : 경주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적용”,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규호·김사헌(1998),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김남조(1998), “산업연관분석에서 산업통합 방법에 의한 관광승수의 비교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김사헌(1985),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원.

_____(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_____(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_____(1986), 「국민관광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정부(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손대현(1995), 「관광론」, 일신사.

손태환(1997),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관광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_____(1997),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관광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

국관광학회.

오순환(1997), “관광의 지역경제적 역할과 파급효과 : 아드-혹 승수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충기·박창규(1996), “한국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조순(1986), 「경제학원론」, 법문사.

조현순(1991), “외래관광객 지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산업연관분석 중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승이(1986), “우리 나라 관광산업 투자의 산업연관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1996), 「1995 도시기계연보」.

_____(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_____(1998), 「1997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관광공사(1998), 「1997 한국관광통계」.

한국은행(1998), 「1995년 산업연관표」.

_____(1998), 「산업연관분석해설 : 원리와 이용」.

홍기용(1995), 「지역경제론」, 박영사.

Archer, Brian(1973), *The Impact of Domestic Tourism*, Univ. of Wales Press.

Chadwick, R.A.,(1987), "Concepts, Definitions and Measures used in Travel and Tourism Research",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edited by Richte J.R & Goeldner, C.R., John Wiley & Sons. Inc.

- Fletcher, John E.(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alysis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John Wiley & Sons.
- Frechling, D.C.(1987), "Assessing the Impacts of Travel and Tourism Measuring Economic Benefits",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edited by Ritchie, J.R & Goeldner, C.R., John Wiley & Sons. Inc.
- Fridgen, D.Joseph(1991), *Dimensions of Tourism*, Michigan: The Educational Institute of the 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
- Gray, H.P.(1982),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Travel b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7(1)*.
- Keynes, J.M.(1993), "The Multiplier", *The new Stateman and Nation* 1(April).
- Kotler, P.(1993), *Marketing Places*, Free Press.
- Kottke, Marvin(1988), "Estimating Economic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5*.
- Lankford, Samuel V. & Howard, Dennis R.(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1*.
- Leiper, Neil(1979), " The Framework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 McIntosh, Goeldner, Ritchie(1995), *Tourism: principles, pratices,*

philosophies, Wiley.

National Tourism Policy Study(1976), U.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U.N. ESCAP(1990),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of A Standard Tourism
Sector Paper.

Var, Turgut and Jojo Quayson(1985), "The Multiplier Impact of Tourism in •
the Okanaga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2(4).

WTO(1997), Tourism 2020 Vision : Executive Summary,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Madrid, Spain.

附 錄

<附表 Ⅲ-1> 국 산 거 래 표

(단위: 백만원)

투 입	1 농림 수산업	2 광 산 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8 비금속 광물제품	9 제1차금속 및 금속제품
1 농림수산업	1395283	5588	13714187	38937	30502	0	155574	73	12
2 광 산 품	710	0	29183	5338	2854	0	172224	1924351	173271
3 음식료품	3184005	0	4079155	99287	9571	0	228215	438	0
4 섬유 및 가죽	103727	3339	19967	7442730	23940	10881	233771	26033	51650
5 목재 및 종이제품	209478	21913	652911	306458	3074568	1777268	534442	251303	186020
6 인쇄, 출판 및 복제	14361	2608	78582	85373	47463	568126	209428	34937	50047
7 석유, 석탄 및 화 학 제 품	1912069	151627	1415975	4176169	694864	298910	16801146	936805	2160432
8 비금속 광물제품	12610	752	231545	17216	46099	1266	361361	2381086	563587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62307	14243	658778	109816	54857	3442	690868	275509	23390159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435524	159774	241435	461997	94401	104093	823403	359966	935101
11 전기, 가스, 수도업	83285	106412	347907	453455	300154	48773	1375591	542172	1516484
12 건 설	24274	8758	16769	20318	4548	938	35545	8021	51566
13 도 매	189035	9770	916834	691564	364238	161909	1034015	231829	871737
14 운수, 보관 및 통신	305611	52689	506497	331142	264102	100172	720064	567558	647432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763092	323108	1710305	2102919	664739	626363	3392299	821726	2286779
16 정부서비스	91554	7249	133922	120684	32412	18079	763836	92377	340065
17 기타 서비스	329370	111417	559418	857684	197447	285784	1054305	283054	799559
18 관 광 산 업	108261	22063	248806	438376	85275	141933	619955	164278	349146
중간투입계	10224556	1001310	25562176	17759463	5992034	4147937	29206042	8901516	34373047
수 입	768271	24826	4351020	6490775	3213114	366775	20374283	1109637	9152669
(피용자보수)	2800445	818988	3878279	6284875	1833314	2113284	7224247	2879809	6609297
부가가치계	20948764	2229463	11996825	10485997	3837596	3123847	22796798	5869477	14664846
총 투 입 액	31941591	3255599	41910021	34736235	13042744	7638559	72377123	15880630	58190562

10 일반기계및 기타제조업	11 전기,가스, 수도업	12 건 설	13 도 매	14 운수,보관및 통신	15 금융,부동산 및사업서비스	16 정부서비스	17 기타서비스	18 관광산업	산 출 투 입
36160	0	102244	0	0	27148	107306	1478689	1038	1 농림수산업
45578	98008	739754	0	0	217	6897	22831	0	2 광 산 품
1516	0	0	623	0	5142	35537	7126893	14095	3 음식료품
699038	7328	112672	11017	30935	73540	144261	614466	97896	4 섬유 및 가죽
1350889	528	1645939	36417	14563	87720	88292	710524	322063	5 목재 및 종이제품
249397	11613	114261	128362	94076	2234806	647045	366686	425256	6 인쇄, 출판 및 북 제
6893029	1394441	2425060	441787	1388369	747755	3180984	1121439	2648336	7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2050205	7454	9155004	1887	2175	3045	61552	163886	40957	8 비 금 속 광물제품
11747509	58628	10452053	3679	32176	20232	143010	213137	79129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34951301	203058	6093866	150418	812646	1087124	3116855	820120	1304012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100692	2023292	159211	122066	215223	1128588	825097	95648	963010	11 전기,가스,수도업
64792	707051	28199	32406	44026	4661239	1075474	4536	121279	12 건 설
3123914	77233	1379542	33236	97287	148709	478641	1042664	272964	13 도 매
1432176	141268	1204583	1057713	678500	2548333	578458	574610	2649402	14 운수,보관 및 통신
7516400	465066	10126563	2944310	1883542	15660156	2827303	1373327	8291893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659610	222983	460766	84674	159843	235653	775751	68228	292926	16 정부서비스
2046835	145749	968309	1041351	652086	3347372	3470315	938140	1823799	17 기타 서비스
1492358	62347	820718	756690	734362	1098361	729023	4679157	1150884	18 관 광 산 업
78461399	5626047	45988744	6846636	6839809	33115140	18291801	21414981	20498939	중간투입계
27190902	2140249	2459663	516447	4235641	637714	2488975	3124075	2819024	수 입
22460813	1631592	20354621	6514921	7906875	26883222	40667248	2766878	16267180	피용자보수
51444885	7304053	34059810	15475651	17520467	71027977	44943321	5158386	32914769	부가가치계
157097186	15070349	82508217	22838734	28595917	104780831	65724097	29697442	56232732	총 투 입 액

중 간 수요계	민 간 소비지출	정 부 소비지출	민간고정자 본형성	정부고정자 본형성	재고증가	수 출	최종수요계	총 산 출	산 출 투 입
17092741	12752420	0	60162	12863	1080045	943360	14848850	31941591	1 농림수산업
3221216	-6881	0	0	0	-18061	59325	34383	3255599	2 광 산 품
14784477	25141878	176012	0	0	-36272	1843926	27125544	41910021	3 음식료품
9707191	8670446	0	62542	1390	-39811	16334477	25029044	34736235	4 섬유 및 가죽
11271296	764569	0	0	0	45201	961678	1771448	13042744	5 목재 및 종이제품
5362427	2090196	0	0	0	45835	140101	2276132	7638559	6 인쇄, 출판 및 복제
48789197	10751384	0	0	0	378720	12457822	23587926	72377123	7 석유, 석탄 및 화 학 제 품
15101687	318560	0	0	0	-23164	483547	778943	15880630	8 비 금 속 광물제품
48009532	839758	0	1622263	-123673	-82774	7925456	10181030	58190562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52155094	16897859	0	35737408	321238	410973	51574614	104942092	157097186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11407060	3634049	0	0	0	0	29240	3663289	15070349	11 전기, 가스, 수도업
6909739	0	0	58506038	17032561	0	59879	75598478	82508217	12 건 설
11125121	4502972	0	2638073	21772	198242	4332554	11713613	22838734	13 도 매
14360310	5697946	0	305494	8773	65807	8157581	14235601	28595911	14 운수, 보관 및 통신
64779890	34609610	0	3873481	12742	0	1505108	40000941	104780831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560612	20993099	37150157	0	0	0	20229	58163485	65724097	16 정부서비스
18911994	7593277	0	0	0	0	3192171	10785448	29697442	17 기타 서비스
13701993	34275225	424686	3947639	38287	13588	3831314	42530739	56232732	18 관 광 산 업
374251577	189526367	37750855	106773100	17325953	2038329	113852382	467266986	841518563	중 간투입계
									수 입
									(파용자보수)
									부가가치계
									총 투 입 액

<附表 Ⅲ-2> 투 입 계 수 표

산 출 투 입	1 농 립 수산업	2 광 산 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출판 및 복제	7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8 비 금 속 광물제품	9 제1차금속및 금속제품
1 농림수산업	0.043682	0.001716	0.327229	0.001121	0.002339	0.000000	0.002149	0.000005	0.000000
2 광 산 품	0.000022	0.000000	0.000696	0.000154	0.000219	0.000000	0.002380	0.121176	0.002978
3 음식료품	0.099682	0.000000	0.097331	0.002858	0.000734	0.000000	0.003153	0.000028	0.000000
4 섬유 및 가죽	0.003247	0.001026	0.000476	0.214264	0.001836	0.001424	0.003230	0.001639	0.000888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6558	0.006731	0.015579	0.008822	0.235730	0.232671	0.007384	0.015824	0.003197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0450	0.000801	0.001875	0.002458	0.003639	0.074376	0.002894	0.002200	0.000860
7 석유, 석탄 및 화 학 제 품	0.059861	0.046574	0.033786	0.120225	0.053276	0.039132	0.232133	0.058990	0.037127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00395	0.000231	0.005525	0.000496	0.003534	0.000166	0.004993	0.149936	0.009685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001951	0.004375	0.015719	0.003161	0.004206	0.000451	0.009545	0.017349	0.401958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13635	0.049077	0.005761	0.013300	0.007238	0.013627	0.011377	0.022667	0.016070
11 전기, 가스, 수도업	0.002607	0.032686	0.008301	0.013054	0.023013	0.006385	0.019006	0.034140	0.026061
12 건 실	0.000760	0.002690	0.000400	0.000585	0.000349	0.000123	0.000491	0.000505	0.000886
13 도 매	0.005918	0.003001	0.021876	0.019909	0.027926	0.021196	0.014286	0.014598	0.014981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009568	0.016184	0.012085	0.009533	0.020249	0.013114	0.009949	0.035739	0.011126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55197	0.099247	0.040809	0.060540	0.050966	0.082000	0.046870	0.051744	0.039298
16 정부서비스	0.002866	0.002227	0.003195	0.003474	0.002485	0.002367	0.010554	0.005817	0.005844
17 기타 서비스	0.010312	0.034223	0.013348	0.024691	0.015138	0.037413	0.014567	0.017824	0.013740
18 관 광 산 업	0.003389	0.006777	0.005937	0.012620	0.006538	0.018581	0.008566	0.010345	0.006000
중간투입계	0.320102	0.307566	0.609930	0.511266	0.459415	0.543026	0.403526	0.560527	0.590698

10 일반기계및 기타제조업	11 전기,가스, 수도업	12 건 설	13 도 매	14 운수,보관및 통신	15 금융,부동산및 사업서비스	16 정부서비스	17 기타서비스	18 관광산업	산 출 투 입
0.000230	0.000000	0.001239	0.000000	0.000000	0.000259	0.001633	0.049792	0.000018	1 농림수산업
0.000290	0.006503	0.008966	0.000000	0.000000	0.000002	0.000105	0.000769	0.000000	2 광 산 품
0.000010	0.000000	0.000000	0.000027	0.000000	0.000049	0.000541	0.239983	0.000251	3 음식료품
0.004450	0.000486	0.001366	0.000482	0.001082	0.000702	0.002195	0.020691	0.001741	4 섬유 및 가죽
0.008599	0.000035	0.019949	0.001595	0.000509	0.000837	0.001343	0.023925	0.005727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1588	0.000771	0.001385	0.005620	0.003290	0.021328	0.009845	0.012347	0.007562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43877	0.092529	0.029392	0.019344	0.048551	0.007136	0.048399	0.037762	0.047096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013051	0.000495	0.110959	0.000083	0.000076	0.000029	0.000937	0.005519	0.000728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74779	0.003890	0.126679	0.000161	0.001125	0.000193	0.002176	0.007177	0.001407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222482	0.013474	0.073858	0.006586	0.028418	0.010375	0.047423	0.027616	0.023190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07006	0.134256	0.001930	0.005345	0.007526	0.010771	0.012554	0.003221	0.017125	11 전기,가스,수도업
0.000412	0.046917	0.000342	0.001419	0.001540	0.044486	0.016363	0.000153	0.002157	12 건 설
0.019885	0.005125	0.016720	0.001455	0.003402	0.001419	0.007283	0.035110	0.004854	13 도 매
0.009116	0.009374	0.014600	0.046312	0.023727	0.024321	0.008801	0.019349	0.047115	14 운수,보관 및 통신
0.047846	0.030860	0.122734	0.128917	0.065868	0.149456	0.043018	0.046244	0.147457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3295	0.014796	0.005584	0.003707	0.005590	0.002249	0.011803	0.002297	0.005209	16 정부서비스
0.013029	0.009671	0.011736	0.045596	0.022803	0.031946	0.052801	0.031590	0.032433	17 기타 서비스
0.009500	0.004137	0.009947	0.033132	0.025681	0.010482	0.011092	0.157561	0.020466	18 관 광 산 업
0.499445	0.373319	0.557384	0.299782	0.239188	0.316042	0.278312	0.721105	0.364537	중간투입계

<附表 IV-1> 생 산 유 발 계 수

산 출 투 입	1 농 립 수산업	2 광 산 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출판 및 복제	7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8 비금속 광물제품	9 제1차금속및 금속제품
1 농림수산업	1.090366	0.009167	0.399077	0.010744	0.008875	0.010267	0.009132	0.006921	0.005777
2 광 산 품	0.000962	1.001224	0.002662	0.001628	0.001936	0.001195	0.004739	0.144036	0.008458
3 음식료품	0.126432	0.013613	1.160510	0.018235	0.010840	0.017648	0.013284	0.012009	0.010446
4 섬유 및 가죽	0.005952	0.003675	0.004112	1.275436	0.004841	0.005332	0.006743	0.005082	0.003938
5 목재 및 종이제품	0.015702	0.014841	0.032270	0.022561	1.314700	0.335643	0.017544	0.032475	0.012888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4035	0.005709	0.006565	0.008493	0.009162	1.087260	0.007465	0.007805	0.005740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101235	0.082318	0.099030	0.218556	0.109127	0.097396	1.320904	0.126913	0.103776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03482	0.004132	0.010419	0.004400	0.007955	0.004540	0.009799	1.180435	0.022161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013738	0.021825	0.039173	0.017922	0.016709	0.012475	0.027535	0.048162	1.683571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26550	0.072928	0.024671	0.033520	0.021650	0.032983	0.027180	0.055991	0.045365
11 전기,가스,수도업	0.009888	0.044396	0.019763	0.028856	0.041195	0.023778	0.033624	0.060878	0.057641
12 건 설	0.005821	0.011443	0.006896	0.008229	0.007522	0.008699	0.006834	0.009915	0.009476
13 도 매	0.013303	0.009463	0.033268	0.033212	0.041578	0.038261	0.022851	0.025304	0.030975
14 운수,보관 및 통신	0.018475	0.025695	0.027329	0.023886	0.036251	0.032699	0.020757	0.056231	0.028895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94726	0.142538	0.108199	0.127039	0.106914	0.155682	0.093323	0.124321	0.107612
16 정부서비스	0.006114	0.006585	0.007990	0.009204	0.006671	0.006902	0.016263	0.012307	0.014030
17 기타 서비스	0.021156	0.046157	0.030886	0.045912	0.031511	0.059653	0.028603	0.040246	0.035356
18 관 광 산 업	0.011589	0.019222	0.018493	0.030100	0.019367	0.038060	0.019889	0.026569	0.021424
산 출 승 수	1.569527	1.534933	2.031313	1.917934	1.796804	1.968473	1.686468	1.975600	2.207527

10 일반기계및 기타제조업	11 전기,가스, 수도업	12 건 설	13 도 매	14 운수,보관 및통신	15 금융,부동산 및사업서비스	16 정부서비스	17 기타서비스	18 관광산업	산출 투입
0.005593	0.003940	0.006970	0.009058	0.005215	0.007424	0.012036	0.158219	0.007658	1 농림수산업
0.004260	0.009816	0.026859	0.000691	0.000743	0.001822	0.001560	0.003143	0.001129	2 광 산 품
0.009472	0.006719	0.010115	0.016903	0.009535	0.013201	0.019426	0.299716	0.014115	3 음식료품
0.009266	0.002506	0.004730	0.002957	0.003144	0.002952	0.005660	0.030432	0.004593	4 섬유 및 가죽
0.020834	0.006250	0.037052	0.009658	0.006152	0.014514	0.011527	0.051472	0.016191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6672	0.004147	0.008432	0.011968	0.007266	0.029160	0.014485	0.021084	0.014660	6 인쇄, 출판 및 복제
0.100083	0.153982	0.085342	0.043706	0.078131	0.029318	0.084323	0.113111	0.083389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023864	0.010296	0.137466	0.002693	0.002643	0.008483	0.006402	0.012406	0.004383	8 비 금 속 광물제품
0.167722	0.027681	0.235616	0.007350	0.011315	0.017506	0.020504	0.033685	0.013428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1.300261	0.033929	0.115991	0.019666	0.044678	0.027687	0.072059	0.058101	0.042214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22574	1.162575	0.023610	0.012273	0.014156	0.018770	0.020881	0.020123	0.027482	11 전기,가스,수도업
0.007344	0.058403	1.011134	0.010304	0.007051	0.054771	0.021467	0.008732	0.012937	12 건 설
0.033302	0.012042	0.029588	1.006672	0.008075	0.007390	0.014736	0.052276	0.011131	13 도 매
0.023482	0.018755	0.034958	0.057535	1.031743	0.035513	0.017825	0.045754	0.059423	14 운수,보관 및 통신
0.108041	0.073361	0.198793	0.178305	0.100674	1.204742	0.081334	0.146943	0.203477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34092	0.020933	0.013133	0.006277	0.008671	0.005097	1.015951	0.009127	0.009044	16 정부서비스
0.031634	0.021485	0.033739	0.058960	0.032536	0.045821	0.064520	1.059372	0.047564	17 기타 서비스
0.023798	0.013109	0.025494	0.048292	0.035377	0.023665	0.026249	0.180632	1.034839	18 관 광 산 업
1.932296	1.639930	2.039020	1.503266	1.407106	1.547836	1.510945	2.304327	1.607659	산 출 승 수

<附表 IV-2> 소 득 유 발 계 수

산 출 투 입	1 농 립 수산업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8 비금속 광물제품	9 제1차금속 및 금속제품
1 농림수산업	0.095597	0.000804	0.034989	0.000942	0.000778	0.000900	0.000801	0.000607	0.000506
2 광 산 품	0.000242	0.251871	0.000670	0.000410	0.000487	0.000301	0.001192	0.036234	0.002128
3 음식료품	0.011700	0.001260	0.107392	0.001687	0.001003	0.001633	0.001229	0.001111	0.000967
4 섬유 및 가죽	0.001077	0.000665	0.000744	0.230766	0.000876	0.000965	0.001220	0.000919	0.000713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2207	0.002086	0.004536	0.003171	0.184797	0.047179	0.002466	0.004565	0.001811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1116	0.001580	0.001816	0.002350	0.002535	0.300801	0.002065	0.002159	0.001588
7 석유, 석탄 및 화 학 제 품	0.010105	0.008216	0.009885	0.021815	0.010892	0.009722	0.131845	0.012668	0.010358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00632	0.000749	0.001889	0.000798	0.001443	0.000823	0.001777	0.214061	0.004019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001560	0.002479	0.004449	0.002036	0.001898	0.001417	0.003127	0.005470	0.191220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03796	0.010427	0.003527	0.004793	0.003095	0.004716	0.003886	0.008005	0.006486
11 전기, 가스, 수도업	0.001071	0.004807	0.002140	0.003124	0.004460	0.002574	0.003640	0.006591	0.006240
12 건 설	0.001436	0.002823	0.001701	0.002030	0.001856	0.002146	0.001686	0.002446	0.002338
13 도 매	0.003795	0.002699	0.009490	0.009474	0.011861	0.010914	0.006518	0.007218	0.008836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005108	0.007105	0.007557	0.006605	0.010024	0.009041	0.005739	0.015548	0.007989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4304	0.036571	0.027760	0.032594	0.027431	0.039943	0.023944	0.031896	0.027610
16 정부서비스	0.003783	0.004075	0.004944	0.005695	0.004128	0.004271	0.010063	0.007615	0.008681
17 기타 서비스	0.001971	0.004300	0.002878	0.004278	0.002936	0.005558	0.002665	0.003750	0.003294
18 관 광 산 업	0.003352	0.005561	0.005350	0.008707	0.005603	0.011010	0.005754	0.007686	0.006198
총소득효과	0.172851	0.348077	0.231715	0.341274	0.276100	0.453913	0.209617	0.368551	0.290982

10 일반기계및 기타제조업	11 전기,가스, 수도업	12 건 설	13 도 매	14 운수,보관 및통신	15 금융,부동산및 사업서비스	16 정부서비스	17 기타서비스	18 관광산업	산 출 투 입
0.000490	0.000345	0.000611	0.000794	0.000457	0.000651	0.001055	0.013872	0.000671	1 농림수산업
0.001072	0.002469	0.006757	0.000174	0.000187	0.000458	0.000392	0.000791	0.000284	2 광 산 품
0.000877	0.000622	0.000936	0.001564	0.000882	0.001222	0.001798	0.027735	0.001306	3 음식료품
0.001677	0.000453	0.000856	0.000535	0.000569	0.000534	0.001024	0.005506	0.000831	4 섬유 및 가죽
0.002928	0.000879	0.005208	0.001358	0.000865	0.002040	0.001620	0.007235	0.002276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1846	0.001147	0.002333	0.003311	0.002010	0.008067	0.004008	0.005833	0.004056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9990	0.015370	0.008518	0.004362	0.007799	0.002926	0.008417	0.011290	0.008323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004327	0.001867	0.024928	0.000488	0.000479	0.001538	0.001161	0.002250	0.000795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19050	0.003144	0.026761	0.000835	0.001285	0.001988	0.002329	0.003826	0.001525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185903	0.004851	0.016584	0.002812	0.006388	0.003958	0.010303	0.008307	0.006035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02444	0.125866	0.002556	0.001329	0.001533	0.002032	0.002261	0.002179	0.002975	11 전기,가스,수도업
0.001812	0.014408	0.249445	0.002542	0.001739	0.013512	0.005296	0.002154	0.003192	12 건 설
0.009500	0.003435	0.008440	0.287161	0.002304	0.002108	0.004203	0.014912	0.003175	13 도 매
0.006493	0.005186	0.009666	0.015909	0.285281	0.009820	0.004929	0.012651	0.016431	14 운수,보관 및 통신
0.027720	0.018822	0.051003	0.045747	0.025829	0.309096	0.020868	0.037701	0.052205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1095	0.012952	0.008126	0.003884	0.005365	0.003154	0.628627	0.005647	0.005596	16 정부서비스
0.002947	0.002002	0.003143	0.005493	0.003031	0.004269	0.006011	0.098701	0.004431	17 기타 서비스
0.006885	0.003792	0.007375	0.013970	0.010234	0.006846	0.007593	0.052254	0.299361	18 관 광 산 업
0.307055	0.217611	0.433247	0.392267	0.356238	0.374220	0.711894	0.312843	0.413471	총소득효과

<附表 IV-3> 부 가 가 치 유 발 계 수

산 출 투 입	1 농 립 수산업	2 광 산 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출판 및 복제	7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8 비금속 광물제품	9 제1차금속및 금속제품
1 농림수산업	0.715112	0.006012	0.261733	0.007046	0.005821	0.006733	0.005989	0.004539	0.003789
2 광 산 품	0.000659	0.685647	0.001823	0.001115	0.001326	0.000818	0.003245	0.098637	0.005792
3 음식료품	0.036191	0.003897	0.332198	0.005220	0.003103	0.005052	0.003803	0.003438	0.002990
4 섬유 및 가죽	0.001797	0.001109	0.001241	0.385022	0.001461	0.001610	0.002036	0.001534	0.001189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4620	0.004367	0.009495	0.006638	0.386827	0.098757	0.005162	0.009555	0.003792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1650	0.002335	0.002685	0.003473	0.003747	0.444643	0.003053	0.003192	0.002347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031886	0.025928	0.031192	0.068839	0.034372	0.030677	0.416048	0.039974	0.032686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01287	0.001527	0.003851	0.001626	0.002940	0.001678	0.003622	0.436289	0.008191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003462	0.005500	0.009872	0.004517	0.004211	0.003144	0.006939	0.012138	0.424284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08695	0.023882	0.008079	0.010977	0.007090	0.010801	0.008901	0.018336	0.014856
11 전기,가스,수 도 업	0.004793	0.021517	0.009578	0.013986	0.019966	0.011524	0.016296	0.029506	0.027936
12 건 설	0.002403	0.004724	0.002847	0.003397	0.003105	0.003591	0.002821	0.004093	0.003912
13 도 매	0.009014	0.006412	0.022542	0.022505	0.028174	0.025926	0.015484	0.017146	0.020989
14 운수,보관 및 통신	0.011320	0.015743	0.016744	0.014635	0.022211	0.020035	0.012718	0.034452	0.017703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64212	0.096623	0.073345	0.086116	0.072474	0.105532	0.063261	0.084273	0.072947
16 정부서비스	0.004181	0.004503	0.005463	0.006294	0.004562	0.004720	0.011121	0.008416	0.009594
17 기타 서비스	0.003675	0.008017	0.005365	0.007975	0.005473	0.010362	0.004968	0.006991	0.006141
18 관 광 산 업	0.006783	0.011251	0.010824	0.017618	0.011336	0.022278	0.011642	0.015552	0.012540
총부가가치	0.911740	0.928995	0.808879	0.666999	0.618198	0.807880	0.597108	0.828059	0.671679

10 일반기계및 기타제조업	11 전기,가스, 수도업	12 전 설	13 도 매	14 운수,보관 및통신	15 금융,부동산및 사업서비스	16 정부서비스	17 기타서비스	18 관광산업	산 출 투 입
0.003668	0.002584	0.004571	0.005941	0.003420	0.004869	0.007894	0.103767	0.005023	1 농림수산업
0.002917	0.006722	0.018393	0.000473	0.000509	0.001248	0.001068	0.002152	0.000773	2 광 산 품
0.002711	0.001923	0.002895	0.004838	0.002729	0.003779	0.005561	0.085794	0.004040	3 음식료품
0.002797	0.000757	0.001428	0.000893	0.000949	0.000891	0.001709	0.009187	0.001386	4 섬유 및 가죽
0.006130	0.001839	0.010902	0.002842	0.001810	0.004270	0.003392	0.015145	0.004764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2728	0.001696	0.003448	0.004894	0.002972	0.011925	0.005924	0.008622	0.005995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31523	0.048500	0.026880	0.013766	0.024609	0.009234	0.026560	0.035627	0.026265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008820	0.003805	0.050808	0.000995	0.000977	0.003135	0.002366	0.004585	0.001620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42268	0.006976	0.059379	0.001852	0.002852	0.004412	0.005167	0.008489	0.003384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425799	0.011111	0.037984	0.006440	0.014631	0.009067	0.023597	0.019026	0.013824	10 일반기계 및 가타 제조업
0.010941	0.563458	0.011443	0.005948	0.006861	0.009097	0.010120	0.009753	0.013320	11 전기,가스,수도업
0.003032	0.024109	0.417401	0.004253	0.002911	0.022610	0.008862	0.003605	0.005341	12 전 설
0.022566	0.008160	0.020049	0.682126	0.005472	0.005007	0.009985	0.035423	0.007543	13 도 매
0.014387	0.011491	0.021418	0.035251	0.632140	0.021759	0.010921	0.028033	0.036408	14 운수,보관 및 통신
0.073238	0.049729	0.134756	0.120868	0.068244	0.816661	0.055134	0.099608	0.137932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3313	0.014314	0.008981	0.004292	0.005929	0.003485	0.694725	0.006241	0.006185	16 정부서비스
0.005495	0.003732	0.005860	0.010241	0.005651	0.007959	0.011207	0.184011	0.008262	17 기타 서비스
0.013930	0.007673	0.014922	0.028267	0.020707	0.013852	0.015365	0.105729	0.605723	18 관 광 산 업
0.696265	0.768580	0.851519	0.934182	0.803373	0.953261	0.899556	0.764798	0.887787	총부가가치

<附表 IV-4> 수 입 유 발 계 수

산 출 투 입	1 농 립 수산업	2 광 산 품	3 음식료품	4 섬유 및 가죽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7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8 비금속 광물제품	9 제1차 금속 및 금속 제품
1 농림수산업	0.026226	0.000220	0.009599	0.000258	0.000213	0.000247	0.000220	0.000166	0.000139
2 광 산 품	0.000007	0.007635	0.000020	0.000012	0.000015	0.000009	0.000036	0.001098	0.000064
3 음식료품	0.013126	0.001413	0.120482	0.001893	0.001125	0.001832	0.001379	0.001247	0.001084
4 섬유 및 가죽	0.001112	0.000687	0.000768	0.238327	0.000905	0.000996	0.001260	0.000950	0.000736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3868	0.003656	0.007950	0.005558	0.323880	0.082687	0.004322	0.008000	0.003175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0194	0.000274	0.000315	0.000408	0.000440	0.052206	0.000358	0.000375	0.000276
7 석유, 석탄 및 화 학 제 품	0.028498	0.023173	0.027877	0.061524	0.030719	0.027417	0.371837	0.035726	0.029213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00243	0.000289	0.000728	0.000307	0.000556	0.000317	0.000685	0.082481	0.001548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002161	0.003433	0.006161	0.002819	0.002628	0.001962	0.004331	0.007575	0.264805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04595	0.012623	0.004270	0.005802	0.003747	0.005709	0.004704	0.009691	0.007852
11 전기, 가스, 수 도 업	0.001404	0.006305	0.002807	0.004098	0.005850	0.003377	0.004775	0.008646	0.008186
12 건 설	0.000174	0.000341	0.000206	0.000245	0.000224	0.000259	0.000204	0.000296	0.000282
13 도 매	0.000301	0.000214	0.000752	0.000751	0.000940	0.000865	0.000517	0.000572	0.000700
14 운수, 보관 및 통신	0.002737	0.003806	0.004048	0.003538	0.005370	0.004843	0.003075	0.008329	0.004280
15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0577	0.000868	0.000659	0.000773	0.000651	0.000948	0.000568	0.000757	0.000655
16 정부서비스	0.000232	0.000249	0.000303	0.000349	0.000253	0.000261	0.000616	0.000466	0.000531
17 기타 서비스	0.002226	0.004856	0.003249	0.004830	0.003315	0.006275	0.003009	0.004234	0.003719
18 관 광 산 업	0.000581	0.000964	0.000927	0.001509	0.000971	0.001908	0.000997	0.001332	0.001074
총 수입유발	0.088260	0.071005	0.191121	0.333001	0.381802	0.192120	0.402892	0.171941	0.328321

10 일반기계및 기타제조업	11 전기,가스, 수도업	12 건 설	13 도 매	14 운수,보관 및통신	15 금융,부동산및 사업서비스	16 정부서비스	17 기타서비스	18 관광산업	산 출 투 입
0.000135	0.000095	0.000168	0.000218	0.000125	0.000179	0.000289	0.003806	0.000184	1 농림수산업
0.000032	0.000075	0.000205	0.000005	0.000006	0.000014	0.000012	0.000024	0.000009	2 광 산 품
0.000983	0.000698	0.001050	0.001755	0.000990	0.001371	0.002017	0.031116	0.001465	3 음식료품
0.001732	0.000468	0.000884	0.000553	0.000588	0.000552	0.001058	0.005687	0.000858	4 섬유 및 가죽
0.005132	0.001540	0.009128	0.002379	0.001516	0.003576	0.002840	0.012680	0.003989	5 목재 및 종이제품
0.000320	0.000199	0.000405	0.000575	0.000349	0.001400	0.000696	0.001012	0.000704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28174	0.043346	0.024024	0.012303	0.021994	0.008253	0.023737	0.031841	0.023474	7 석유,석탄 및 화 학 제 품
0.001667	0.000719	0.009605	0.000188	0.000185	0.000593	0.000447	0.000867	0.000306	8 비 금 속 광물제품
0.026381	0.004354	0.037059	0.001156	0.001780	0.002753	0.003225	0.005298	0.002112	9 제1차 금속 및 금 속 제 품
0.225053	0.005873	0.020076	0.003404	0.007733	0.004792	0.012472	0.010066	0.007306	10 일반기계 및 기타 제조업
0.003206	0.165106	0.003353	0.001743	0.002010	0.002666	0.002965	0.002858	0.003903	11 전기,가스,수도업
0.000219	0.001741	0.030143	0.000307	0.000210	0.001633	0.000640	0.000260	0.000386	12 건 설
0.000753	0.000272	0.000669	0.022764	0.000183	0.000167	0.000333	0.001182	0.000252	13 도 매
0.003478	0.002778	0.005178	0.008522	0.152822	0.005260	0.002640	0.006777	0.008802	14 운수,보관 및 통신
0.000658	0.000446	0.001210	0.001085	0.000613	0.007332	0.000495	0.000894	0.001238	1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1291	0.000793	0.000497	0.000238	0.000328	0.000193	0.038474	0.000346	0.000343	16 정부서비스
0.003328	0.002260	0.003549	0.006202	0.003423	0.004820	0.006787	0.111443	0.005004	17 기타 서비스
0.001193	0.000657	0.001278	0.002421	0.001774	0.001186	0.001316	0.009055	0.051878	18 관 광 산 업
0.303735	0.231420	0.148481	0.065818	0.196627	0.046739	0.100444	0.235202	0.112213	총수입유발

ABSTRACT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Tourism by Consumption Expenditure of Foreign Tourists.

- An Input-Output Analysis -

Chae, Young-Taek

Department of Tourism &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Kyongju University

Now that tourism is established as an universal social phenomenon the tourism industry is fast developing as the world greatest industry which overrides autos, steel, electronics, and agriculture industry.

As a result, a national interest in tourism and tourism industry, which is called invisible export or industry without chimney,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 developed countries are supporting the tourism industry in order to propagate their culture and gain a high profit for local government while developing countries are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for making up a balanceof trade defic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 of tourism industry with special emphasis put on input-output analysis and learn to know how much foreign tourists' spending is affecting overall industry sector.

In order to do this, input-output analysis table of the year 1995, which i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s used as a basic data and again 402 sections of domestic transaction table are combined into 18 sectors including tourism industry. 14 sectors such as retailing, restaurant and lodging business are included as a tourism industry, which is difficult to classif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ccording to this, the effect of production promotion induced by the tourist industry is low compared to the overall industry average and income effect and value-added effect are shown to be high. Import effect appears very littl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tourism industry seems to be near the same as the overall industry average.

As a result, the tourism industry proves to be an industry promoting more income and value-added than other industries and less import affected, that is to say the high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industry.

Economic effect of tourism, which is calculated with foreign tourists' expenditure in Korea is as follows; when each foreign tourist spends one million Won(Korean currency unit) production effect amounts to 1,607,700 Won, income effect 413,500 Won and value-added effect 887,800 Won in consequence.

This means that the tourism industry can exercise a positive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if it is well managed in relation with other industry sectors because of its low import effect and high income and value-added effect.

•

감 사 의 글

하얗게 밤을 지새운 날 교정엔 서리가 내렸습니다.

배우며 살고 살며 배우리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한 조그만 결실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불혹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공부이기에 남
다른 감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무디어진 지성을 날카롭게 精鍊해주신 金奎鎬 교수님과 넓은 아량으로 여러
모로 도와주신 卞優熙 학과장님, 관광지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丁源
一 교수님, 항상 넉넉한 모습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신 趙庸棋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날 함께 밤을 새며 내 일처럼 도와준 대학원의 이동학 학형에게도 무한
한 감사를 표합니다.

만학의 자식을 안쓰럽게 지켜보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3남매 뒷바라지를 하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내조해준 아내에게는 미안
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늦은 귀가로 함께 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주현, 윤녕, 원훈 3남매에게는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쁜 사위를 이
해하시고 도와주신 장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돌봐준 두 처
제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혼자 이룰 수도 없다
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잊지않고 앞으로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1998년 12월 蔡榮澤